

한 영 옥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정주 시 주제의 교수법 연구

- 설화 모티프 시를 중심으로 -

2004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이 병 속

## 논문 개요

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이 능력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 교육은 학습자의 문학 능력을 증진시키고, 문학적 체험이 실제 삶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자기 성찰과 새로운 자기 형성을 함양하는 것이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시 교육에 관한 올바른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본고에서는 근대 시문학사와 중·고등학교 시 교육에서 일정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당 서정주 시를 논고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서정주 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고민을 바탕으로 특정 작가와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시 교수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시 교수법의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미당 시 연구의 흐름을 훑어봄으로써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설화 모티프를 수용한 시를 시 교육 내용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의 시에 나타난 설화 수용과 문학 세계와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토대로 설화 모티프의 주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 교수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설화 모티프 수용은 첫 시집인 『화사집』에서부터 여섯 번째 시집 『질마재 신화』에 수록된 작품들 중에 설화 모티프를 수용한 작품을 중심으로 설화 모티프의 수용과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설화의 수용 양상은 서구 설화 수용, 불교 설화 수용, 토착 설화 수용으로 나누었다. 미당은 『화사집』에서 서구 정신의 영향으로 대부분 서구 지향적인 시를 썼다. 『화사집』에서 볼 수 있는 관능적인

세계로의 몰입은 고대 그리스적 육체성과 보들레르 시 세계의 영향, 니체의 초인 사상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미당의 초기 문학 세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시집인 『귀축도』와 세 번째 시집인 『서정주 시선』에서는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동양의 고대 설화나 고전 소설을 시에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잘 알려진 설화의 시적 수용은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사람들이 공감할 보편적인 정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다.

미당의 시 의식의 변화는 『신라초』, 『동천』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미당은 신라 설화에 매력을 느끼고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같은 신라 관계 문헌을 정독하였다. 이를 통해 미당은 신라 정신의 핵심을 풍류정신에서 찾게 되는데 이러한 풍류 정신과 영원주의는 이후 불교의 윤회설이나 인연설로 확대되어 미당의 문학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또한 신라정신은 우리 고유의 국선도와 불교적 우주관이 결합된 것으로 인간존의 영원성을 믿는 고대적 사유 태도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후 미당이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세계인 질마재로의 귀환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교수법은 주제별로 나누어 텍스트 상호간의 비교 분석 과정을 고려하였다. '읽기 전 활동 - 읽기 중 활동 - 읽기 후 활동'으로 나누어 수업이 진행된다. 읽기 전 활동은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의 학생들의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읽기 중 활동은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작품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유도하도록 한다. 읽기 후 활동은 학생들이 작품을 통해 받았던 전체적인 느낌이나 학습한 내용, 주제를 내면화하는 과정이 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교수-학습의 일반적 모형을 참고로 하여 문학 교과서에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는 「추천사」의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해 보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실제 문학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시 감상 모형의 확립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교육 현장은 이러한 시 교수법을 실현시킬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실현시킬 교육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 입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어떤 식의 시 교육 개선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학이나 교육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사람의 문제이다. 문학을 좋아하고 잘 아는 사람이 많아질 때 문학도 문학 교육도 저절로 잘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는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이 제대로 된 문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문학 교육 중 특히 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시를 작품이라는 틀 안에 가두지 말고 시가 철학과 같이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사 .....	4
3. 연구 방법 .....	13
II. 설화 모티프 수용의 실제와 의의 .....	15
1. 서구 설화 수용의 경우 .....	16
2. 불교 설화 수용의 경우 .....	26
3. 토착 설화 수용의 경우 .....	37
III. 주제별 교수법의 모색 .....	59
1. 자아인식 .....	62
2. 사랑의 지고성 .....	66
3. 한(恨)의 肉化 .....	71
4. 인생의 고귀함 .....	75
IV. 교수 - 학습의 실제 .....	81
V. 결론 .....	86

## 참고 문헌

## ABSTRACT

# I. 서론

## 1. 연구 목적

시 교육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설정되어 있다. 첫째, 시는 고도의 언어 예술이므로 높은 수준의 언어교육을 할 수 있다. 둘째, 인간의 심리적 진실과 삶을 담고 있으므로 정서적, 지적 통찰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셋째, 시를 읽고 쓰는 과정에서 상상력과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수행할 시교수법은 아직까지 충분히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불충분한 시교수법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시를 가르치는 교사조차도 수업하기 가장 어려운 단원으로 시 단원을 꼽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생들도 시는 어렵고 재미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sup>1)</sup> 그 이유는 시가 감성에 호소하며 공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sup>2)</sup>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라는 것이 단순한 논리 구조가 아니며, 분명한 증명이나오는 것도 아닌 시 자체의 구조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up>3)</sup> 또한 이렇

---

1) 기존의 논문에서 수행된 현장 조사에 따르면 학교 급과 지역·계열의 구분 없이 지도 및 학습이 가장 어려운 제재로 시가 꼽히고 있으며, 어려운 이유로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아래 논문들 참조.

김연수, 중학교 현대시 교육의 실태와 수업모형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8).

조연수, 현대시 감상 지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0).

김 숙, 시의 본질적 특성에 따른 시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1).

박재순, 현대시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1993).

2) 유병석, 교단에서 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문학사상』, no. 32 (1975), p.375.

3) 오탁번, 현대문학의 이해와 교육 방법, 고대출판부 『교육논총』, no. 14 (1984), p.6.

게 가르치기도 배우기도 어려운 이유는 제재 자체가 교수·학습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시적인 언어 사용의 제 양상이 일상의 언어 사용과 상당 부분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sup>4)</sup> 그렇다고 해도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이유는 시교수법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절한 시교수법이 분명하지 않은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시 교육 전문가를 자처하는 교사 및 평론가 집단 사이에서 시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고민은 주로 적절한 교수법의 모색이라는 기능적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교육 과정 속에서 주어진 문학 텍스트의 심미적 수용 과정에 효과적으로 개입하여 도울 수 있는 교수법을 궁리해 내는 것이 교사들의 고민이라 할 수 있다.

문학 교육은 문학에 대한 지식이나 언어적 현상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것을 얼마나 잘 감상하고 우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문학교육 중 특히 시 교육은 시 그 자체가 아니라 시의 주변 지식을 외우는 암기 과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의 시 교육은 학생들에게 시를 찾아주고 스스로의 것이 되도록 하고 나아가 삶 속으로 시를 되돌려 주어 시를 감상하는데 즐거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 학습 활동이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 능력에 부합되어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체험과 관련 지어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열린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행히 입시 제도의 변화와 학업 평가 방식의 다양화로 학교 수업에서 교사의 자율성이 넓어지고 학생 중심의 수준별 학습을 위한 7차 교육 과정에 맞추어 다양한 수업 방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교사의 역량에 의해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4) 김창원, 『시교육과 텍스트 해석』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본고에서는 근대 시문학사와 중·고등학교 시 교육에서 일정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당(未堂) 서정주시에 나타난 설화 모티프의 수용을 중심으로 서정주와 그의 작품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교수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서정주의 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다가 미당의 일제 강점기 친일 행위와 독재 정권에 영합하였던 전력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면서 문학교육 현장에서도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래서 7차 교육과정 개편시 국정교과서에서는 그의 시가 잇따라 배제됐으며 검정 교과서도 일부만이 제한적으로 수록되었다. 또한 미당의 부끄러운 과거와 문학과 상관 관계에 대한 논의를 벌이는 등 그의 평가와 관련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가 시인으로써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부인할 수는 없지만 시인은 시로서 남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정주를 논고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그의 작품이 우리 근대 시사에서 만만치 않은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양적으로는 1000여 편에 가까운 작품 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작품의 질적 수준도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서정주의 시 작품은 한국 근대 문학사나 근대 시사를 기록하는 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sup>5)</sup> 그리고 그의 이러한 문학적 성과는 곧바로 중·고등학교에서의 문학 교육을 위한 제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sup>6)</sup>

따라서 기존의 문학사 서술에서 검증된 서정주의 작품 중에서 학생들의 인지정서 수준에 맞는 작품들을 골라 심도있게 감상하고자 한다. 그래서 서정주 시

5) 윤재웅, 미당 연구사 개관, 『시와 시학』, (1996 가을), pp.201-212.

6) 윤여탁, 문학 교육에서 이론의 위치, 『시 교육론 - 시의 소통 구조와 감상』 (서울 : 태학사, 1996), pp.31-46.

참고로 그동안 서정주의 시가 교과서에 수록된 사항을 밝히면, 「자화상」, 「화사」, 「국화 옆에서」, 「귀축도」, 「추천사」, 「학」, 「무등을 보며」, 「동천」, 「질마재 신화」 등이 과거 또는 현재의 『국어』나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이런 작품 수록은 초기부터 후기까지 전체를 학습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보이는 예이다.

교수법이라는 특정 작가에 대한 집중적인 감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사

미당 시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다양한 이론과 관점으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sup>7)</sup>. 이것은 미당이 한국 시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뿐만 아니라 시 세계의 다양한 변모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당의 시 세계에 대해 “미당과 같은 많은 얼굴, 그것도 서로 대립하는 많은 얼굴들을 한꺼번에 만들어 갖고 있는 시인도 드물 것 같다”<sup>8)</sup>고 평가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미당 시의 구체적인 교수법에 대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은 실정이다. 중·고등학교 교과에서 미당 시가 꾸준히 학습되어 온 것에 비하면 현장에서의 연구나 관심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연구사는 일반적인 마당 연구사로 대신하도록 하겠다.

미당에 대한 그간의 연구 결과는 크게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시의 이미지나 운율, 화자의 어조, 시간과 공간 등 작품 자체의 의미나 효과를 밝혀내려는 연구 경향이다. 둘째로는 국내외의 다른 시인이나 작품과의 영향 관계를 해명하는 비교 문학적 검토가 있으며, 셋째로는 서정주 시인 특유의 이른바 신라정신이나 영원주의, 불교사상 등 사상적 배경에 대한 탐색 작업을 들 수 있다. 넷째로는 시인 서정주와 그의 작품 전반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연구가 있다. 이를 토대로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7) 『미당 연구』에 수록된 ‘미당 연구 논저 목록’에는 총 243개의 연구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는 상·하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있고, 여러 편의 연구 결과가 단행본으로 엮어진 경우도 있어서 실제 연구 결과는 훨씬 방대할 것으로 짐작된다.

8) 김시대, 서정주의 역설적 의미, 『서정주 연구』(서울: 동화출판공사, 1975), p.345.

### (1) 시의 방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에 관한 연구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그의 시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이미지들에 관한 연구와 둘째 설화를 차용함으로써 독특한 시적 세계를 이루게 한 설화적 모티프에 관한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당 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작품 구조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다.

우선 첫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김재홍의 「하늘과 땅의 변증법」과 「대지적 사랑과 우주적 조용」이라는 글이 있다.<sup>9)</sup> 김재홍은 이 글 속에서 미당의 시를 바슐라르의 상상력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고찰하고 있는데 그는 『화사집』에서 『동천』까지의 작품에 나오는 이미지들을 분석함으로써 미당 시학의 근원이 대지성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재봉<sup>10)</sup>은 미당의 중심적인 시적 심상을 피와 물의 이미지로 보고 있다. 이 중 피는 관능과 동물적 상상력, 생명의식의 탐구로 나타나고, 물은 정화, 심화, 역동성으로 나타나는데 피는 주로 초기시를, 물은 후기시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였다.

황인교<sup>11)</sup>는 미당 시에 나타난 이미지의 역동적 변화를 통해 그의 상상력의 움직임의 살피고 있는데 이 움직임은 바로 미당의 독특한 지향적 체험인 유체성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화영<sup>12)</sup>은 서정주 시가 지닌 무(無)의 미학을 해명하였으며, 특히 섬세한 감각적 분석을 통해 시적 언어의 색채와 느낌까지 해명하고자 하였다. 수많은 서정

9) 김재홍, 대지적 사랑과 우주적 조용, 『현대문학』 (1975,5).

10) 하재봉, 서정주 시에 나타난 물질적 상상력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81).

11) 황인교, 서정주 시의 상상력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2).

12) 김화영, 『미당 서정주의 시에 대하여』 (서울 : 민음사, 1984).

주 시에 대한 연구 가운데 그 방법론적 독창성과 감각적 정밀성으로 독자적인 의의를 지닌다.

변해숙<sup>13)</sup>은 서정시의 시간개념과 현상학적 시간관념을 바탕으로 서정주의 시를 분석 체계화하였다. 초기시에서는 과거 회상으로 망각해야 할 현재에 대응했으며, 후기시에서는 시간을 가시적 사물로 감각화하여 보여주었다고 하고, 꽃, 난초, 학, 거북, 물 등의 지속성을 띠는 이미지가 그런 것들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미당의 시 세계를 설화와의 관련성에서 접근한 연구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미당 시의 설화 수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견해를 제시한 경우로, 허영자<sup>14)</sup>, 주옥<sup>15)</sup>, 임문혁<sup>16)</sup>, 오세영<sup>17)</sup>, 강성자<sup>18)</sup> 등의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허영자는 미당의 시 가운데 문헌 설화를 시화한 작품만을 중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관련 설화의 출처를 밝혀 놓았다. 그는 미당이 고전 설화를 시화하는 과정에서 설화의 충실한 해설자 노릇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면적인 설화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생명력을 부여하여 탁월한 상상력을 발휘함으로써 차원 높은 현대시로 승화시켜 놓았다고 평가하였다.

주옥은 연구 대상을 『화사집』에서부터 『떠돌이의 시』까지로 제한하고, 설화 수용 양상에서 출발하여 인류 보편의 상징을 찾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특히 설화의 시적 변용에 대표적인 세 편의 연작시를 분석하여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와 원형적 이미지를 고찰하였다. 그는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는 현대

13) 변해숙, 서정주 시의 시간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대학원, 1987).

14) 허영자, 현대시에 나타난 신화의 세계 (상·하), 성신여사대 『연구논문집』 8·9 (1975·1976).

15) 주옥, 서정주 시의 설화 수용 양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1983).

16) 임문혁, 한국 현대시의 전통 연구 : 설화의 수용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1992).

17) 오세영, 설화의 시적 변용, 김우창 외, 『미당 연구』 (서울 : 민음사, 1994).

18) 강성자, 서정주 시의 설화 수용과 변천 양상, 『한국현대문학과 전통 : 청하 성기조 선생 회갑기념 논문집』 (서울 : 신원문화사, 1993), pp.237-265.

인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이든 원형적 심상의 출현을 요구하게 되는데, 설화를 수용하여 시로 변용한 미당의 시들은 안정감과 감동을 주는 통합 상징을 통해 시대의 혼란상을 성공적으로 보상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미당 시의 설화 수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견해를 제시한 이용훈<sup>19)</sup>은 『신라초』에 수록된 작품 중 설화를 직접 시의 소재로 한 9편의 내용 양상을 각각 살핀 후, 미당이 시적 방법으로서의 설화에 대한 인식이 결여됨으로써 단지 설화의 반복에 그치고 말았다는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김경희는 제 1시집인 『화사집』에서 제 7시집인 『떠돌이의 시』를 대상으로 하여 설화 수용의 의의를 동일성 회복으로 파악하였고, 설화 수용의 방법을 자기 체험화·상징화·율격화·재구술의 네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는 전통 설화를 시로 구축하는 미당의 작업이 전통 설화가 현대 시 문학에 서식할 수 있는 기틀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나 『질마재 신화』로 넘어오면서 설화를 재구술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미당 시의 특이한 작품 구조에 관한 연구가 있다.

김종길<sup>20)</sup>은 시의 요소를 어의, 운율, 형상, 어조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당시의 작품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그는 미당의 시 「추천사」는 위의 요소 가운데서 하나나 둘에 의존하지 않고 시의 각 요소들이 결합됨으로써 형성되는 특수하고 미묘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

황동규<sup>21)</sup>는 미당 시의 구조를 '탈'이라는 대상을 설정하여 파악하고 있다. 그는 미당의 시는 마치 화가가 탈 속에 숨어서 비극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희극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즉 미당의 초기시에는 주

---

19) 이용훈, 미당 시의 설화 수용의 양상 : 「신라초」를 중심으로, 『한국해양대학교논문집』 13 (1978) : 61-71.

20) 김종길, 「추천사의 형태」, 『사상계』 (1975.5).

21) 황동규, 「탈의 완성과 해체」, 『현대문학』 (1981.9).

로 비극적이고 공격적이며 관능적인 화자가, 후기시로 올수록 즐거운 화자, 상승 지향적인 화자가 등장하는데 이러한 점은 마치 탈을 쓰고 있는 화자의 이중적인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다.

## (2) 비교문학적 연구

이에 관한 연구는 다시 동시대 다른 시인들과의 비교 연구와 외국 시인들과의 비교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이남호<sup>22)</sup>는 서정주의 「자화상」을 운동주의 「자화상」과 비교 분석하여, 각 시인이 어떤 자기 인식을 지니고 있는가를 밝혀낸다.

최동호<sup>23)</sup>는 꽃의 이미지를 통해 김소월, 이육사, 그리고 서정주의 시를 비교하고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힌다. 서정주의 경우 꽃의 이미지를 통해 인간적 삶의 아픔을 표현했다고 지적한다.

심재휘<sup>24)</sup>는 시간 의식을 중심으로 서정주와 1930년의 다른 시인들을 비교 분석한다, 그는 백석과 이용악을 수평적 시간으로, 유치환과 서정주를 수직적 시간으로 구별한다.

외국 시인들과의 비교 연구로는 송욱<sup>25)</sup>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서정주의 시를 보들레르의 시와 관련짓는다. 「화사」를 예로 들어 미당의 서구적인 표현이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강렬한 육체적인 정열을 처리할 수 있는 투명

---

22) 이남호, 운동주와 서정주의 「자화상」 비교 분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1).

23) 최동호, 『서정적 자아 탐구와 시적 변동 : 이상·운동주·서정주를 중심으로』 (서울 : 현대문학, 1980.6).

24) 심재휘, 1930년대 후반기 시 연구 : 백석·이용악·유치환·서정주 시의 시간의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 대학원, 1997).

25) 송욱, 서정주론, 『문예』 (1952. 11).

한 지성과 윤리와 미학의 결핍에서 찾았다. 이것은 미당이 크게 영향을 받은 보들레르와의 거리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히려 그가 전통적인 서정의 세계로 돌아와 생명을 근원으로 삼으면서 비로소 극복되었다고 평가했다.

이후 보들레르와의 비교는 김학동<sup>26)</sup>과 황현산<sup>27)</sup>으로 이어진다. 김학동은 '지성과 윤리의 미학'의 부재를 들어 보들레르의 외양적 면에 치우쳐 있음을 서정주시의 한계성으로 지적했다.

황현산은 서정주가 보들레르에게서 취한 것이 단순히 육체적 관능이 아니고 시인으로서의 소명감에 의한 것이며 서구 근대시의 뛰어난 감수성을 새로운 표현 양식으로 숙달해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삶을 형상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고 결론지었다.

허세욱<sup>28)</sup>은 도잠(도연명)과 이백, 서정주가 모두 각각의 차원에서 동양적 '무(無)'를 추구했으나 공통적으로는 유(儒)·불(佛)·도(道)의 순서로 영향을 받은 가운데 서정주는 아무래도 도잠 쪽에 가깝다고 보았다.

### (3) 신라정신·영원주의·불교사상 연구

미당시에 나타난 신라정신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두 가지의 성향을 보인다. 하나는 미당시에서 추구하는 신라정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신라정신 또는 영원주의란 단지 관념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견해이다.

먼저 신라정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는 강희근<sup>29)</sup>, 최원규<sup>30)</sup>등의 논문에서 나

26) 김학동, 서정주 초기 시에 미친 영향, 『어문학』, no.16, (1967, 5).

27) 황현산, 서정주, 농경사회의 모더니즘, 『한국문학연구』, no.17, (1995, 3).

28) 허세욱, 도잠(陶潛)과 이백(李白)과 미당 사이 : 서정주 시의 동양적 사상계보론, 『미당 서정주 연구』 (서울 : 동화출판공사, 1975).

29) 강희근, 서정주 시의 서술성에 대하여, 『월간문학』 (1984. 1).

30) 최원규, 『미당시의 불교적 영향』 (서울 : 한국근대시론, 한문사, 1983).

타나고 있다.

강희근은 미당시에 있어서 신라정신의 도입은 그 한국적 전통정서의 재현에 성공을 이룩하여 자기의 시적 공간을 한국시사에 뚜렷히 해놓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와 더불어 최원규도 미당시의 근본적인 정신 요소를 신라정신이라고 보았다. 최원규는 미당이 시대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자기만의 시 세계를 고집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인 정신의 본질이 있기 때문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꽃'으로 비유되는 신라정신이라는 것이다. 그는 미당의 초기시에서 보이는 타고난 죄의 몸부림의 세계는 서정주적인 연작시를 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의 체험들이었으며, 그 서론적 과정을 통해 미당은 자기 정신의 광명의 농도가 짙은 역사성이나, 시대감각을 초월한 시정신의 세계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최원규는 미당이 신라정신이라는 역사의식 속에서 시의 소재를 발견하여 그 영혼의 심연을 헤아리고 있으며, 이러한 경지는 인간성의 아름다움으로 표상될 때에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차원 높은 정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라정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글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영원성과 현실성이라는 맥락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미당이 신라정신 속에 내재되어 있는 영원주의를 피력하다 보니 시의 중요한 관건인 현실성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견해이다.

문덕수<sup>31)</sup>는 미당이 신라정신이라는 우리의 잠재적 정신을 최초로 발견하기는 하였지만 그의 작품 속에서 향가에 나타난 것과 같은 '본질적인 신라정신'<sup>32)</sup>이

---

31) 문덕수, 신라정신에 있어서의 영원성과 현실성, 『현대문학』(1963. 4).

32) 문덕수는 「怨歌」, 「彗星歌」같은 향가에는 자연과 현실의 조화와 인간의 의사가 잘 융합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處容歌」와 「도술가」에 나타난 주술적 효용은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나타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향가에 나타난 신라정신의 영원성은 현실을 떠난 이데아의 세계에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문명을 갖고 있는 현실세계에서 구현되는 것이라 주장한다.

결합되고 있다고 보았다. 즉 미당의 시 속에 나타난 현실은 단지 그의 영원주의 이데아를 표현하기 위한 계기가 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학동<sup>33)</sup> 역시 문덕수와 견해를 같이 한다. 그는 미당의 시가 한국 고유의 전통으로 돌아와 신라의 광명을 찾아가는 그 관념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원숙의 경지에 들어섰을지는 모르지만 그 세계는 우리에게 공감을 주지 못하고 다만 기진한 압기 같은 것을 느끼게 해 줄 뿐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처럼 미당의 신라정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미당이 초기시에 지니고 있던 역동적인 육체성과 생명성이 그 체험을 바탕으로 잘 조화되어 성공을 거두고 있는 반면에 그가 신라의 영원주의를 내걸고 썼던 후기시에 있어서는 관념의 세계만 있을 뿐 현실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으로 일관되어 있다.

#### (4) 시인 서정주와 작품의 전반적 연구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서정주의 시 세계를 해명하고자 한 연구로는 김우창<sup>34)</sup>, 천이두<sup>35)</sup>, 김인환<sup>36)</sup>, 김재홍<sup>37)</sup>, 유종호<sup>38)</sup>, 김수이<sup>39)</sup>등 많은 평론들과 논문들이 있다. 김우창은 “그의 초기시는 한쪽으로는 강렬한 관능과 한쪽으로는 대담한 리얼리즘을 그 특징으로 했다. 이것은 육체와 정신의 필연적인 갈등,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솔직하게 인정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고 서정주의 초기시를 긍

33) 김학동, 신라의 영원주의, 『어문학』 (1974.4).

34) 김우창, 한국시와 형이상 : 하나의 관점 - 최남선에서 서정주까지, 『세대』 (1968.7).

35) 천이두, 지옥과 열반 : 서정주론, 『시문학』 (1972).

36) 김인환, 서정주의 시적 여정 : 『화사집』에서 『질마재 신화』까지의 거리, 『문학과 지성』 (1972. 여름).

37) 김재홍, 생애사(生涯史)와 역사적 순응주의, 『현대문학』 (1982. 12).

38) 유종호, 소리 지향과 산문 지향 : 미당 시의 일면, 『작가세계』 (1994. 봄).

39) 김수이, 서정주 시의 변천 과정 연구 : 육망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7).

정하지만, “후기시에서의 종교적인 도는 평속적인 입장은 그 직시적인 구제의 약속으로 그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켰다”고 후기시를 비판한다.

천이두는 『화사집』부터 『동천』까지의 시적 여정이 지옥에서 열반에 이르는 구도의 과정으로 파악하면서 김우창과는 다른 견해를 보여준다.

김인환은 서정주의 시적 여정을 일반적인 경험과 정서의 성숙 과정에서 상응하는 것으로 해명하면서도 『동천』 이후의 시편에서 고통의 자각 정도가 점점 희박해져간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표현한다. 그는 특히 미당의 사회관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의 인연사상은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가짐으로써 의미의 확대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미래로 정진하는 추진력이 되지 못하고있다고 비판하였다.

유종호는 서정주의 시에 대하여 전폭적인 긍정의 평가를 내린다. 가령 『질마재 신화』에 대해서 탁월한 긍정의 정신과 현실주의를 지닌, “가장 독자적이고 성공적인 민중문학의 하나”라고 평가한다.

그동안 이루어진 미당시에 대한 연구 성과를 논의의 편의상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대표적인 논문만 언급하면서 살펴보았다. 아울러 그 외의 여러 논문들 역시 넓게는 위의 유형 속에 포괄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업적을 검토 정리해본 결과 미당시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론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서정주 시에 대한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일차적인 개별 작품에 대한 충분한 해석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래서 서정주 시의 연구는 그 방대한 양에 비해서 축적된 결실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서 살펴 본 서정주 시 연구사를 토대로 학생들로 하여금 서정주와 그의 작품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교수법의 제시가 그 목적이다.

###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18종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서정주의 작품을 중심으로 텍스트의 상호 관련성이 깊은 작품들을 선별 추가하여 비교 감상하게 하는 시교수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미당<sup>40)</sup>이 누구보다도 다양한 사상적 변화를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탐구한 세계가 설화의 세계라는 점을 착안하여 설화 모티프 수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당은 시종일관 설화를 수용한 시를 통해 자신의 문학세계를 완성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그의 작품에 설화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서정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설화에 대한 서정주의 관심은 그가 인생에서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대한 시사라고 할 수 있다.

엘리엇(T.S Eliot)은 “시인의 임무는 새 정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정서를 활용하는 것”<sup>41)</sup>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설화는 공동체라는 사회 상황 속에서 형성되어 오랜 세월 동안 전승되어 내려온 것이므로 그 속에는 보편적인 정서가 함축되어 있고, 여기에 시인이 설화를 활용하여 창조 활동을 할 근거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설화의 시적 수용 혹은 변용을 한 시인들로는 서정주 외에도 많은 시인들이 있다.<sup>42)</sup> 이 중에서도 미당 서정주는 우리 나라 현대 시사에서 설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한 대표적인 시인이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설화의 개념은 신화 · 전설 · 민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

40) 미당은 1930년부터 많은 양의 문학 및 철학 서적을 탐독했으며, 특히 1935년에는 인생의 진리를 찾는 사상가가 될 목적으로 중앙불교전문학교에 입학하여 동·서양의 사상을 접하기도 하였다.

서정주, 내가 해 오시는 시의 길, 『나는 왜 문학을 하는가』(서울 : 문학사상사, 1993), p.169.

41) 『T.S Eliot 선집』, 이창배 역(서울 : 을유문화사, 1974), p.378.

42) 김소월, 김춘수, 박재삼, 전봉건, 신동엽, 송수권, 백석, 신석초, 김영랑, 신경림 등이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에 수록된 문헌설화뿐만 아니라 민간에 전승된 구전설화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춘향전』이나 『홍부전』과 같이 고대소설이면서 이미 우리의 의식 속에 옛날 이야기로 자리잡고 있는 설화적 고전 작품이나, 민속과 관련을 맺고 있는 속신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서구 설화나 중국의 전래 설화뿐만 아니라 설화가 시에 간접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것들까지도 포함시킨다. 이처럼 설화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시키는 이유는 설화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이러한 설화가 미당의 시적 상상력과 탁월한 언어 감각을 통해 어떻게 형상화되어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본고에서는 첫 시집인 『화사집』에서부터 여섯 번째 시집 『질마재 신화』에 수록된 작품들 중에 설화 모티프를 수용한 작품을 중심으로 설화 모티프의 수용과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설화의 시적 수용을 파악하기보다는 미당의 문학 세계를 지속적으로 변화·발전시키는 데 설화의 수용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설화 모티프를 시의 주제와 관련하여 시 교수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당의 시는 인간적 소재를 통해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런 인간들이 지향하는 영원의 세계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이를 주제별로 나누어 감상해 보고 텍스트 상호 간의 비교 분석 과정을 고려한 교수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교수법은 시 교육 영역 하에 ‘이해-감상-표현’의 단계를 고려하여 수업 과정을 설계하였다. ‘읽기 전 활동 - 읽기 중 활동 - 읽기 후 활동’으로 나누어 수업이 진행되는 데 읽기 전 활동은 흥미 유발의 단계로 주제 범주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읽기 중 활동은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작품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유도하도록 한다. 읽기 후 활동은 주제를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판적 글쓰기나 토론 수업을 유도하였다. 이는 이해-감상-표현 영역을 포괄하는 학습 모형이라 할 수 있고 나아가 시를 통해 환기되는 느낌이나 정서에 공감하면서 나아가 감수성과 상상력을 계발하고 문화적인 감수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

## II. 설화 모티프 수용의 실제와 의의

미당 서정주는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壁」이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이후 끊임없는 창작열로 2000년 12월 24일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두 14권의 시집과 다수의 산문집·민담·설화집을 발표했다.<sup>43)</sup> 그는 시집을 출간할 때마다 새롭게 변모된 시정신을 보여주어 한국시단의 주목을 받았다.

따라서 그의 시 세계를 간략히 정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는 미당이 누구보다 다양한 의식의 변화를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탐구한 세계가 설화의 세계라는 점을 착안하여 설화 모티프 수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당의 설화 모티프 수용은 크게 서구 설화 수용과 동양 설화 수용으로 나눌 수 있다. 미당은 서구 정신 세계의 영향에서 벗어나 신라와 불교에 대한 관심을 거쳐 토속적인 정취에 몰입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양 설화 수용을 불교 설화와 토착 설화로 세분화하였다. 토착 설화는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등에 수록된 문헌 설화뿐만이 아니라 구전설화, 고전 소설, 민속과 관련을 맺고 있는 속신을 포함하여 설화로 한정한다. 작품을 분류함에 있어 불교 설화와 토착 설화 양쪽에 동시에 포함되는 작품도 있다.

---

43) 1994년에 발간된 『미당 시전집』(민음사)에 수록된 작품 총 수는 모두 900편이다. 또한 1950년 봄부터 1999년 봄까지 서정주의 시작 노트에 육필된 창작시 중에는 미수룩시가 대략 150여 편에 이른다. 따라서 그의 시력(詩歷) 65년 간 쓴 시는 1000여편이 훨씬 넘는다.

윤재웅, 미당 미수룩시 연구 I, 『동악어문론집』 37(2001).

## 1. 서구 설화 수용의 경우

서정주의 첫 시집 『화사집』이 나온 것은 1941년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시작활동은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壁」이 당선되면서부터다. 이 시기에는 이전의 한국문단을 주도해온 프로문학이 뚜렷한 퇴조를 보였다. 그와 동시에 서구적 기법을 수용한 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조류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연의 삶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하는 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한 빈 공간을 채워줄 새로운 시 형태의 시를 시도하는 시인군(詩人群)이 나타났다. 그들이 곧 1936년 11월 <<시인부락>>을 중심으로 활동한 서정주, 오장환, 함형수, 김달진 등이다. 이들 <<시인부락>>동인의 활동 방향은 그 창간호의 편집 후기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햇볕이 바로 쬐이는 位置에 生生하고 젊은 한개의 詩人部落을 建設하기로 한다. 뒤으로 까마득한 過法에서 앞으로 未-未來를 展望할 수 있는 곧-이미 病들은 벗들에게는 좋은 療養所, 오히려 健康한 벗들에게는 明日의 出發을 爲한 充分한 滋養이 될 수 있도록 여기 未會有的 아름다운 공사가 하루바삐 완성될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열네 사람은 準備工作에 着手하였다. 벌써 여기다가 꼭 무슨 빛깔있는 旗幟를 달아야만 멋진가? 우리의 공사장을 찾아오는 벗의 種族과 衣裝을 審問하도록까지 우리는 가깝고 싶지는 안으니 피리를 가졌든 나팔을 가졌든 또 무엇을 가졌건 마음놓고 그는 그의 最善과 眞실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본래 個性과 口味가 各各 달라 抑制를 當할 때는 언제나 愉快하지 못한 것이니 우리는 우리 部落에 되도록 여러 가지의 果實과 꽃과 이를 즐기는 여러 가지의 식구들이 모여서 살기를 希望한다.<sup>44)</sup>

44) 김용직, 「시인부락 연구」, 『미당 서정주 연구』 (서울 : 동화출판공사, 1975), p.187.

미당이 쓴 위의 창간호의 편집 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시인부락>>은 어떠한 문학 이념이나 사상성의 추구보다는 보편적인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동인들이 각자 개성을 존중하여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다양성의 추구는 그 때까지 한국시단에서 외면했던 생의 진지한 탐구 혹은 생명의 근원적 물음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이들이 최고의 표현 가치로 인식한 생명 혹은 휴머니즘의 탐구를 통한 인간 원형의 모색은 김영랑, 정지용 등 시문학과와 특징인 감각적 기교나 카프 계열의 이데올로기적인 경향과도 위치를 달리 한다. 이러한 기존의 시단에 대한 전체적인 부정은 <<시인부락>>을 중심으로 한 생명과의 문학적 출발점인 동시에 미당의 시 의식을 총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곧 인간의 근원적인 생명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생의 본질을 추구함으로써 문학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당은 누구보다 다양한 사상적 변화를 겪은 이후 자신의 독창적인 시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는 1930년 11월 광주 학생 사건 2주기 때 중앙고등보통학교 4명의 주모자들 중 한사람으로 퇴학을 당하고 서대문 형무소에 끌려가기도 했는데 이때 그를 이끈 사상은 사회주의였다.<sup>45)</sup> 당시의 그의 마음은 다음과 같은 회고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때 내 마음의 실상은 이 나라에 많은 그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을 가엾게 느끼는 인도주의적 감정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인력거를 끄는 빼짝 마른 사람들을 보고도 감상에 젖기가 일쑤였던 때였는데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그 경제적인 균배를 통해 빈부의 격차를 없애야 된다는 주

45) 『미당 자서전 1』에 의하면 “나도 이 삼년의 광주학생사건 동안에는 한 사회주의 소년이 되긴 되었지만 내 경우 그건 그전과 달라진 감각스런 열등 의식에 소년적 감상과 연민성, 그런 것들의 합성이었던 것 같다.”고 한다. (서정주, 『미당 자서전』 [서울 : 민음사, 1994] : 350).

장은 이때 이 나라의 꽤나 많은 학생들에게 먹혀들어갔던 것처럼 내 공  
감도 불리일으켰던 것이다.<sup>46)</sup>

이 글에 의하면 중앙고보에 입학한 해부터 고창고보를 자퇴할 때까지 약 3년  
간 그가 사회주의 사상에 공감한 이유가 “가난하고 비참한 이 나라의 많은 민중  
들의 처참한 꼴을 보고 동정하는 인도주의적 소년의 감정”에 있으며, “경제적인  
분배를 통해 빈부의 격차를 없애야 된다”는 사회주의 주장이 그 해결책임을 느  
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창고보에서 권고자퇴를 한 1931년 겨울부터는 경성부립도서관 종로  
분관에 드나들며 일본말로 번역된 서양 문학 작품을 탐독하며 지낸다. 이때부터  
미당의 본격적인 문학 체험이 시작된다. 특히 미당은 경제적 균배를 인생의 해결  
책으로 삼는 사회주의를 비판한 톨스토이에게서 깊은 감명을 받게 되는데 이는  
스스로 “톨스토이의 『부활』은 생애를 좌우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밝히는데  
서 알 수 있다.<sup>47)</sup>

이렇게 자유주의 문학 소년이 된 미당에게 1932년 여름의 귀향은 독서 체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 이 때부터 그는 꽤나 많은 양의 문학 서적과 철학 서적  
에 몰입하는데 그 중에서도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그를  
각성시킨 가장 중요한 점은 “인간이며 동시에 신의 가치로서의 초인(超人)”의 설  
정에 있다. 그는 “신의 의미를 생각해 낸 것도 사람이었으니, 그런 사람의 자격  
은 신을 겸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니체의 초인에 찬성하면서 그런 초인의 영원

---

46) 서정주, 「내 인생공부와 문학표현의 공부」, 『서정주 문학 앨범』(서울 : 웅진출판, 1993), pp.161-162.

47) 『미당 자서전 1』에는 “경성부립도서관 종로분관에서 내가 또 읽은 것 중에 내 이 뒤  
의 생애를 좌우하는데 제일 큰 힘이 되었던 건 레오 톨스토이의 「부활」이다”라고 밝  
히고 있다.(앞의 책, p.338).

을 통해 큰 산덩어리와 같은 자기 존엄과 환희가 용솨음치는 것을 느낀다.<sup>48)</sup>

이와 함께 이 무렵에 그가 몰입해 있던 그리스 신화의 탐독은 미당의 청소년기와 20대 초기의 인생관을 형성해 내는 데에 큰 힘이 되었다. 또한 이 무렵 미당은 서구 상징주의 시인들의 시와 초현실주의 시인들의 시에 큰 관심을 갖고 일본말로 번역된 서적들을 탐독한다. 특히 미당은 보들레르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는데 이러한 증거들은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미당이 1933년부터 이미 보들레르의 시집 『惡의 꽃』을 애독하고 있었다는 것<sup>49)</sup>과 중앙불교전문학교 시절에 프랑스 시집을 들고 다니며 애독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sup>50)</sup> 바로 이 시집이 보들레르의 『惡의 꽃』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의 글 「내 시와 정신에 영향을 주신 이들」에 나오는 다음 글을 통해서도 그가 보들레르의 시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보들레르의 글을 처음 사귀던 때나, 지금이나, 그가 우리 세계 시문학 속에서 가장 뼈저리게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친밀감을 느껴오고 있다. 나는 그가 한낱 미의 사도인 점을 좋아하는게 아니라 그가 세계 시문학사 속의 여러 시인들 중에서 제일 철저하게 인간의 질곡을 떠메고 형벌받던 시인인 점을 좋아한다. 형벌의 질량을 자진해서 가장 많이 짊어졌던 사람. 이 친치라면 지독한 친치. 이 희생제물. 이 거지와 유대인과 흑인 독부와 이. 벼룩 등 기생충류의 제일인인- 그 말하지 않는 시인의 정으로 인간질곡의 제일 친구가 되어 헤매던 이 사람을 좋아한다.<sup>51)</sup>

일제 식민치하의 가난하고 비참한 민중들의 모습 앞에서 사회주의에 이끌렸던

48) 서정주, 「내 인생공부와 문학표현의 공부」, 앞의 책, p.163.

49) 서정주, 『서정주 문학전집5』 (서울 : 일지사, 1972), p.273.

50) 서정주, 『서정주 문학전집3』 (서울 : 일지사, 1972), p. 231.

51) 서정주, 『서정주 문학 전집5』 (서울 : 일지사, 1972), p. 269.

미당은 이후 문학 작품의 탐독을 통해 자신의 사상적 입지를 넓혀 간다. 특히 미당의 문학 세계는 이후 톨스토이의 영향에 의해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었다가 결국은 반시대적 사상가인 니체와 현대시의 선구자인 보들레르, 그리고 고대 그리스 신화로 연결된다. 이렇게 미당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니체와 보들레르가 각각 동시대 사상과 문학의 일반적 흐름에 대한 반항아로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한 선구자라는 점과 그리스 신화가 신인주의적 육신 현생을 중시한다는 점은 미당의 초기 문학세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당이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니체가 이성 중심의 사상에 반기를 든 철학자라는 점, 『惡의 꽃』의 시인인 보들레르가 근대 사회 밑바닥의 참상 속에 동참하여 인간의 본래 모습을 탐구하고자 한 시인이라는 점은 미당의 문학세계가 비극적인 자아 인식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 주었다.<sup>52)</sup>

미당이 많은 영향을 받았던 서구 정신 세계 즉 니체의 초인 사상과 그리스 신화 및 보들레르의 시 세계에 바탕을 둔 작품들이 그의 첫 번째 시집인 『화사집』에 많이 담겨 있다. 『화사집』에서 미당은 우선 대담한 자기 폭로로부터 자신의 시적 출발을 시도하고 있다.

에비는 종이였다. 밤이 기피도 오지 않았다.  
 파뿌리같은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주 서 있을 뿐이었다.  
 어메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  
 흙으로 바람벽으로 호롱불 밑에  
 손톱이 감한 에미의 아들.  
 甲午年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도라오지 않는다하는 외할아버지의 숯  
 많은 머리털과  
 그 크다란 눈이나는 닮았다 한다.

52) 서정주, 「내 인생공부와 문학표현의 공부」, 앞의 책, pp.173-174.

스물세햇동안 나를 키운건 八割이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가도 부끄럽기만하드라  
어떤이는 내 눈에서 罪人을 읽고가고  
어떤이는 내 입에서 天痴를 읽고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을란다.

찰란히 티워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우에 언친 詩의 이슬에는  
땃방울의 피가 언제나 서꺼있어  
벋이거나 그늘이거나 햇바닥 느러트린  
병든 수캐만양 헐떡어리며 나는 왔다.

- 「자화상」 전문

『화사집』의 첫 작품으로 실려있는 시 「자화상」은 대담한 자기고백 방식이 당시로서는 매우 신선하고 충격적이다. 그래서 이 시가 지니는 덕목은 솔직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첫 연에서 자신의 신분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것은 서구적인 개인주의의 사고방식으로 이렇듯 저주받은 출생에 대한 그의 고백은 창작에 대한 자신의 열정으로 전환되고 있다.

“애비는 종이였다”로 시작되는 강한 인상과 뒷부분은 종의 자식으로서 겪어야 하는 집안의 가난과 “팔할이 바람”이라고 할 정도의 삶의 역경, 죄인과 천치로 취급되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 운명에 대한 체념 끝에 오는 의연함, 병든 수캐처럼 헐떡거리며 살 수 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이 리얼리티를 지니며 제시된다. 이 시에 나타난 미당의 대담한 자기 폭로는 바로 현실을 뛰어넘으려는 보들레르의 삶과 문학의 혁신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당의 시는 우리 시의 전통에서 그동안 금기시 되었던 육체적 탐미의식

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다.

따서 먹으면 자는 듯이 죽는다는  
붉은 꽃밭새이 길이 있어

햇슈 먹은 듯 취해 나자빠진  
능구렁이같은 등어릿길로,  
님은 다라나며 나를 부르고……

강한 향기로 흐르는 코피  
두손에 받으며 나는 쫓느니

밤처럼 고요한 끝은 대낮에우리 둘이는 웬몸이 달어……

- 「대낮」 전문

따서 먹으면 자는 듯이 죽는다는 것은 따서 먹으면 안된다는 금기 사항의 제시다. 그것은 선악과에 대한 금기 사항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꽃밭이 붉다는 것, 그 사이에 난 길이 능구렁이 같은 등어릿길이라는 것은 이미 화자가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정황이다. 이 정황 속에서님은 달아나며 나를 부른다. 나는님을 쫓을 수밖에 없다. 능구렁이만이 햇슈(아편) 먹은 듯 취해 나자빠진 것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님과 결합된우리 둘은 대낮의 열기만큼이나 온몸이 단다. 「화사」보다도 더 육감적인 표현의 시이다. 이러한 육정적 호흡은 이 작품뿐만 아니라 「입맞춤」, 「麥夏」, 「가시내」, 「정오의 언덕에서」 등 여러 편의 시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에서 나타나는성의 묘사는 보들레르의 영향에 의한 것들로 이는 성적 관능이라는 인간의 원초적 영역에 대한

공정과 생명체의 본능적 행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그 기초로 하고 있는 것들이다.

또한 미당의 초기시의 또 다른 면모는 그가 추하고 악한 세계를 시의 제재로 과감하게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적 관능의 영역에 대한 그의 유희주의적 탐구와 함께 인간의 추악한 면을 시에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미당은 인간 내면의 진실을 탐구하고 시적 영역을 확대하게 된다.

麝香 薄荷의 뒤안길이다.

아름다운 배암…

얼마나 커다란 슬픔으로 태어났기에

저리도 징그러운 몸뚱아리나.

꽃대님 같다.

너의 할아버지가 이브를 꼬여내든 達辯의 헛바닥이

소리 잃은 채 널름거리는 붉은 아가리로

푸른 하늘이다. …물어 뜯어라. 원통히 물어 뜯어,

달아나거라 저 놈의 대가리!

돌팔매를 쏘면서, 쏘면서, 麝香芳草入길 저 놈의 뒤를 따르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의 아내가 이브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石油 먹은 듯…石油 먹은 듯…가쁜 숨결이야

바늘에 꼬여 두를까부다. 꽃대님보담도 아름다운 빛…

크레오파트라의 피 먹은 양 붉게 타오르는

고은 입설이다…스며라! 배암.

우리 순네는 스물난 색시, 고양이같이 고은 입설...스며라!배암.

- 「화사」 전문

이 시의 모티브는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 선악과를 따먹게 해 그들로 하여금 원죄를 짓게끔 만든 뱀의 이야기이다. 뱀은 그들을 유혹한 죄로 벌을 받아 징그러운 몸뚱이를 지니고 태어나 일생을 기어다니게 되었다. 대지성의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이란 뱀에게 있어 저주의 대상이다. 하지만 뱀이 징그럽기만 한 존재는 아니다. 특히 화사, 즉 꽃뱀은 꽃대님보다도 아름다운 빛을 지녀 바늘에 꼬여 두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끔까지 한다. 이 모순성 내지 양면성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얘기된다.

꽃뱀은 의미상 꽃(化)과 뱀(蛇)의 복합으로 이어져 있다. 그것은 뱀이 단 순히 징그러움이나 추악의 표상이라는 표면적 의미 영역을 벗어남을 암시한다. 가장 아름다운 것의 표상인 <꽃>과 가장 추하고 징그러운 것의 대명사인 <뱀>의 결합은 그것이 <花蛇>라는 구체적인 오브제를 떠나서도 여러 가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모순성 또는 양면성의 문제와 관련된다. 표면적으로는 꽃처럼 아름다운 색깔과 무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속성적으로는 징그럽고 꿈틀거리는 모습을 지니고 있는 꽃뱀은 운명적인 아이러니의 존재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어쩌면 선과 악, 미와 추, 진실과 허위의 양면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정신과 육체, 이상과 현실, 이성과 감성 등 모순으로 가득찬 인생사의 반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꽃뱀>이란 제목이 예사로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sup>53)</sup>

---

53) 김재홍, 『한국현대시인연구』 (서울 : 일지사, 1986), p.319.

말하자면 뱀은 저주와 유혹이 교차되는 감정을 지니게 하는 그런 동물이다. 그러므로 “돌팔매를 쏘면서” 저주를 하다가도 유혹적인 아름다움 앞에서는 “석유 먹은 듯 가쁜 숨결”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 시의 묘미는 뱀이 ‘순네’로 전환되는 데 있다. 순네는 화자의 젊은 날 기억의 강한 부분을 차지하는 존재이다. 그녀의 고양이 같은 고운 입술은 뱀의 고운 입술과 동일시된다. 이 시에서 보이는 시적 발상의 근원 또한 보들레르와 니체의 상징주의나 실존주의적인 인식에 의해 영향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미당이 사물의 양면성을 발견한 시는 「문둥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해와 하늘 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 뜨면  
애기 하나 먹고  
꼬처럼 붉은 우름을 밤새우렸다.

- 「문둥이」 전문

문둥이는 버림받은 존재이다. 그들은 격리된 채 살아야만 하는 운명적 비애의 존재들이다. 치유될 수 없는 천형적인 형벌로 주어진 운명을 살 수 밖에 없는 존재의 울음이다. 미당은 추한 모습을 하고 있는 저주 받은 문둥이를 통해서 삶에 대한 애착과 인간적인 고뇌의 모습, 꽃처럼 붉은 울음을 우는 문둥이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미당은 추하고 악한 세계를 조명하여 인간의 내면적인 고뇌를 심도있게 상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미당의 첫 시집 『화사집』에서 볼 수 있는 관능적인 세계로의 몰입은 고대 그리스적 육체성과 보들레르의 시 세계의 영향, 니체의 초인 사상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초기시의 특징은 자기 인식과 대담한 자기 고백, 그리고 성적 관능의 세계에 대한 탐구와 악의 세계에 대한 재해석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그의 초기시는 서구 정신의 단순한 영향관계를 벗어나 그 속에서 우리 민족의 토속적인 언어와 정서를 구현, 당대의 체험적 공간을 획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바로 그의 초기시가 갖는 중요한 시사적 의의라 할 수 있다.

## 2. 불교 설화 수용의 경우

『화사집』에서 미당은 서구 정신의 영향으로 대부분 서구 지향적인 시를 썼는데 이들 중에는 그의 의식 세계가 동양적인 세계로 변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도 있다.

「水帶洞詩」, 「西春風」, 「復活」 등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도 특히 「水帶洞詩」는 서구 지향적인 미당의 시가 동양적인 세계로 귀환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작품으로 이후의 작품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미당의 시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흰 무명옷 가라입고 난 마음  
짜늘한 돌담에 기대어 서면  
사뭇 스스러워지는 생각, 高句麗에 사는 듯  
아스럼 눈감았든 내 녀의 시골

별 생겨나듯 도라오는 사투리.

등잔불 벌써 키어 지는데……

오랫동안 나는 잘못 사렸구나.

샤알·보오드레-르처럼 설스고 괴로운 서울女子를

아조 아조 인제는 잊어버려,

仁旺山그늘 水帶洞 十四번지

長水江 뺨밭에 소금 구어먹든

會祖하라버짓적 흙으로 지은집

오매는 남보란 조개를 잘줍고

아버지는 등집 서툰말 졌느니

여기는 바로 十年전 옛날

초록 저고리 입었던 금女, 꽃각시 비녀하야 웃든 三月의

금女, 나와 둘이 있던곳.

머잖아 봄은 다시 오리니

금女동생을 나는 얻으리

눈썹이 검은 금女 동생

얻어선 새로 水帶洞 살리.

- 「水帶洞詩」 전문

이 작품은 미당이 초기시에서 보들레르를 수용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보들레르와 영원한 결별을 선언한 시이기도 하다. 이 시에서 그는 샤알·보들레르와 같은 서울 여자를 아주 잊어버리고, '초록 저고리 입었던 금녀'와 함께 살았던 '인왕산 그늘 수대동 14번지'의 고향으로 정신적인 지향점을 돌린다.

여기서 '서울 여자'가 서구정신을 의미한다면, 눈썹이 검은 '금녀동생'은 동양적 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가 초기시에서 보여준 서구 지향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동양적인 세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동양적 세계로의 전환은 「復活」이라는 작품 속에서는 불교적 색채를 띠고 있다.

내 너를 찾아왔다... 叟娜. 너 참 내 앞에 많이 있구나. 내가 혼자사 鐘路  
를 걸어가면,  
사방에서 내가 웃고 오는 구나. 새벽 닭이 울때마다 보고 싶었다. 내 부  
르는 소리 컷가에  
들리드냐, 叟娜, 이것이 몇萬 時間 만이나. 그 날 꽃상여 山 넘어서 간 다  
음 내 눈동자  
속에는 빈 하늘만 남더니, 매만저 불 머리카락 하나 머리카락 하나 없드  
니, 비만 자꾸  
오고... 燭불 밖에 부엉이 우는 돌 門을 열고 가면 江물은 또 몇천 린지,  
한 번 가선  
소식 없던 그 어려운 住所에서 너 무슨 무지개로 내려왔느냐. 鐘路 네거  
리에 뿌우여니  
흩어져서, 뭐라고 조잘대며 햇볕에 오는 애들 그 중에도 열 아홉 살쯤 스  
무 살쯤 되는  
애들. 그들의 눈망울 속에, 핏대에, 가슴 속에 들어앉아 叟娜! 叟娜! 叟娜!  
너 인제  
모두다 내 앞에 오는구나.

- 「復活」 전문

시 전체의 내용으로 짐작해 볼 때 수나는 오래 전에 죽은 사랑하는 여인으로 볼 수 있다. 그 후 몇 천리인지 모를 먼 곳에서, 몇 만 시간인지 모를 먼 시간이

지난 뒤 무지개로 내려왔다. 물론 실제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종로 네거리에서  
조잘대며 걸어오는 열아홉이나 스무 살쯤 되는 처녀들이 모두 예전에 죽은 수나  
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오래 전에 죽은 사랑하는 여인 수나가 다른 사람으  
로 환생하여 현재의 종로에서 화자와 만나게 된다는 상상은 불교의 윤회사상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미당 시의 변모를 보이기 시작한 중요한 의미  
를 띠고 있는 작품이며 훗날 「춘향유문」이나 「국화 옆에서」 등으로 변용된다.

한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위해  
봄부터 솔작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

한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위해  
천둥은 먹구름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든  
머언 먼 젊음의 뒤편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오란 내 꽃님이 필라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보다

- 「국화 옆에서」 전문

이 시가 발표된 것은 1947년 11월 9일 <<경향신문>>이다. 시인은 이 시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젊은 날의 흥분과 모든 감정의 소비를 겪고 인제는 한 개의 잔잔한 우물이나 호수와 같이 형(型)이 잡혀서 거울 앞에 앉아 있는 한 여인의 美의 영상, 내가 어느 해 새로 이해한 정일(靜逸)한 40대 여인의 미의 영상이 시에 담았다”고 밝히고 있다. 시인의 말대로 이 시에서 누님은 국화꽃에 비유되어 있다. 국화꽃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핀 것이 아니고 봄에 처절하게 울어대는 소쩍새와 여름에 많은 비를 가져오기 전의 천둥소리, 그리고 가을밤의 뭍은 서리가 국화꽃을 피우는데 모두 함께 참여하여 하나의 국화꽃이 완성되었듯이 중년 여인의 원숙미는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동일화의 시상을 이루고 있다. 하나의 꽃이 피기까지의 우주적 인연을 노래했다는 점에서 불교의 인연설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불교적 색채를 띤 작품으로는 「춘향유문」이 있다.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지난 오월 단오스날, 처음 만나든날  
우리 둘이서 그늘밑에 서있든  
그 무성하고 푸르든 나무같이  
늘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단 오히려 더 먼  
딴 나라는 아마 아닐것입니다

천길 땅밧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드래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예요?

더구나 그 구름이 쏘내기되야 피부올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거예요!

- 「춘향유문」 전문

이 시는 도련님 즉 이도령에게 남긴 유서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판소리 「춘향가」에서의 춘향의 기다림이 가져다 준 고독과 고통을 인내하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묘사되는 반면에 「춘향유문」에서는 기꺼이 죽음을 택함으로써 님과의 적극적인 만남을 시도한다. 이것은 곧 설화의 원래 즐거리를 역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54)</sup>

이 시에서 춘향은 천 길 땅 밑을 흐르는 물이 되기도 하고, 도솔천의 하늘을 나는 구름이 되기도 하고, 또 소나기가 되기도 한다. 춘향이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영원히 죽은 것은 아니요 물이 구름이 되고 구름이 소나기가 되어 순환하듯 다시 환생할 수 있다. 이것은 춘향이 지옥이거나 극락이거나 상관없이 언제나 도련님과 함께 있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여기서 춘향이라는 실체는 이미 사라지고 둘의 사랑은 정신적인 것, 천상적인 것으로 상승함으로써 영원성을 획득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불교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윤회 사상과 전통적 세계관이 미당의 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국화 옆에서」나 「춘향유문」을 통해서 미당의 시 세계가 이 시기로

---

54) 김경희·임문혁 등은 이에 대해 '낮설게 하기'의 방식으로 설명한 바 있다. 즉 변용되기 이전의 원래의 설화의 상황이나 인물·배경 등을 바꾸어 줌으로써 새로운 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본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춘향전」의 경우에 춘향은 죽거나 유서를 남기거나 하지 않았음에도 미당은 시 속에서 상황을 낮설게 만듦으로써 적극적으로도 낭만적인 사랑으로 변용시켰다.

부터 불교로 관심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교의 윤회 사상과 인연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영원의 추구는 그의 세 번째 시집 『서정주시선』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신라초』와 『동천』에 이르러 더욱 확연하게 전개된다.

언제든가 나는 한 송이의 모란꽃으로 피어 있었다.  
한 예쁜 처녀가 옆에서 나와 마주 보고 살았다.

그 뒤 어느날  
모란꽃잎은 떨어져 누워  
메말라서 재가 되었다가  
곧 흙하고 한 세상이 되었다.  
그래 이내 처녀도 죽어서  
그 언저리의 흙 속에 묻혔다.  
그것이 또 역수의 비가 와서  
모란꽃이 사위어 된 흙 위의 재들을  
강물로 쓸고 내려가던 때,  
땅 속에 피어 있던 처녀의 피도 따라서  
강으로 흘렀다.

<중략>

그래 이 마당에  
現生의 모란꽃이 제일 좋게 핀 날,  
처녀와 모란꽃은 또 한 번 마주 보고 있다만,  
허나 벌써 처녀는 모란 꽃 속에 있고  
前날의 모란꽃이 내가 되어 보고 있는 것이다.

- 「인연설화조」 부분

이 시는 소녀와 모란이 삼세에 걸쳐서 윤회 전생하는 불교적 과정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미당은 이 시에서 모란꽃으로 피어 있는 나와 모란꽃을 마주 보고 있는 처녀와의 인연관계로 출발하여 나와 처녀 사이의 관계양식을 윤회의 질서 위에서 포착하고 있다. 모란인 내가 떨어져 흙이 되면 처녀도 죽어 흙에 묻히고, 재로 된 내가 강물로 흘러내리면 땅 속에 피었던 처녀의 피도 강물과 합류하고, 강물로 흘러내리는 재(나의 변신)가 물고기 배로 들어가면 물살(처녀의 변신)은 그 고기 가까이 출렁이는 물살이 되고, 그 물고기(나의 변신의 변신)가 물새에 채여 하늘로 오르면 물살(처녀의 변신의 변신)도 김으로 서리어 하늘의 구름이 되고……. 미당은 이처럼 수많은 변신의 과정을 거쳐 현생의 어느 날 처녀는 모란으로 모란이었던 나는 그 꽃(처녀의 변신)을 바라보는 현생의 내가 된다는 끝없는 순환의 반복으로 포착함으로써 현세적·찰나적인 나의 존재를 영원의 시간 질서 속에 편입시킨다. 이것은 곧 모란과 처녀와 소나기와 구름 사이의 영원한 순환 반복을 통해 과거와 미래, 혹은 찰나와 영원을 동일 시공 위에 정착시키려는 미당의 윤회적 발상의 반영이다.<sup>55)</sup>

『동천』에 실린 50편의 시 가운데 불교의 인연 설화를 수용한 작품으로는 「동천」,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나그네의 꽃다발」, 「내가 돌이 되면」, 「내 영원은」, 「마른 여울목」 등이 있다.

섭섭하게,  
그러나  
아조 섭섭지는 말고  
좀 섭섭한듯만 하게,

55) 김학동, 신라의 영원주의: 서정주의 『신라초』를 중심으로, 『어문학』 no.24 (1971), p.65.

이별이게,  
그러나  
아주 영 이별은 말고  
어디 내생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게,

連꽃  
만나러 가는  
바람 아니라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엇그제  
만나고 가는 바람 아니라  
한 두 칠 전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 「連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전문

연꽃은 불교의 상징적인 꽃이다. 그 꽃을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살라는 것은 삶이란 한 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같은 덧없는 것이니 그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1연에서 화자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만남은 이별을 전제로 한다는 입장에서 이별을 담담하게 그러나 조금은 섭섭한 듯하게 이별의 감정을 조절하라고 말한다. 2연에서도 현세가 아닌 내세에서 다시 만날 것을 염두한 이별의 마음을 가질 것을 권하고 있다. ‘연꽃’도 그 함의가 여러 갈래가 되겠지만 사랑 또는 사랑의 대상이라 한다면 그것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져서도 안 되고 “만나고 가는 바람 같이” 한때 스쳐가는 인연, 그것도 오래된 인연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色卽是空 空卽是

色 色不異空 空不異色 )의 불교적 관념을 말하는 시이기도 하고 불교의 인연설이나 윤회사상에 맥이 닿은 시이기도 하다.<sup>56)</sup>이 시에서 미당은 현세에서 내세까지의 거리를 동질의 관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좀 섬섬한 듯만 하게”나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게” 정도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사고 방식으로 불교의 인연설이나 윤회 사상의 경지에 이른 여유로운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마른 여울목」을 살펴보기로 한다.

말라붙은 여울바닥에는 독자갈들이 들어나고  
그 우에 늙은 巫堂이 또 포개어 앉아  
바른 손 바닥의 금을 펴어 보고 있었다.

이 여울을 끼고는  
한 권에서는 少年이, 한권에서는 少女가  
두 눈에 초롱불을 밝혀 가지고 눈을 처음 맞추고 있던 곳이다.

少年은 山에 올라  
맨 높은데 낭떠러지에 절을 지어 지성을 디리다 돌아 가고,  
少女는 할 수 없이 여러군데 후살이가 되었다가 돌아간 뒤…

그들의 피의 소원을 따라 그 피의 분꽃같은 빛깔은 다 없어지고  
맑은 빗날이 구름에서 흘러내려 이 앓은 자갈들우에 여울을 짓더니  
그것도 할 일이 없어선지 자취를 감춘 뒤

말라붙은 여울바닥에는 독자갈들이 드러나고  
그 우에 늙은 巫堂이 또 포개어 앉아

---

56) 박호영, 『서정주』 (서울 : 건국대학교출판부, 2003), pp.90-91.

바른 손바닥의 금을 펴어 보고 있었다.

- 「마른 여울목」 전문

과거-대과거-과거의 시간적 구성으로 이루어진 이 시는 소년과 소녀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과 한을 읊고 있다. 여울을 사이에 두고 비록 함께 할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 이미 서로에 대한 순수한 사랑은 이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소년과 소녀는 이미 이승에서 이미 정해진 운명의 뜻대로 살다가 각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도 슬픔도 없이 한이 씻겨지길 바랐고 그들의 소원대로 분꽃색의 피의 흔적은 다 사라지고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던 여울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사라진다. 이렇게 세월에 묻힌 소년과 소녀의 슬픈 사랑은 그 자리에서 늙은 무당이 손금을 살펴보며 두 사람의 인연을 되새기고 있다.

이 시는 백석의 「여승」의 경우처럼 짧은 형식 속에 무한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물론 이 시 바탕에 깔려 있는 미당의 인식은 이승에서의 인연은 사람의 힘으로써는 어찌지 못한다는 불교의 인연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인연설을 직접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제3자의 입장이 되어 서술하기에 소년과 소녀의 사랑이 더욱 애뜻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불교의 윤회와 인연설을 바탕으로 하는 미당의 시는 과거의 세계를 현재에 재현시키고 이를 미래로 확산하여 영원한 삶의 구조를 이룩하려는 영원주의를 지향한다. 또한 불교적인 설화의 세계는 윤회적인 삶과 그 내밀한 의미를 통하여 하나의 조화로운 영원의 공간으로 표상된다.

### 3. 토착 설화 수용의 경우

미당의 두 번째 시집 『귀촉도』가 나온 것은 1948년이다. 이 시집에 실린 시들은 미당이 일제 말기에 쓴 시와 해방 후에 쓴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귀촉도』는 『화사집』의 세계를 이어받으면서도 시적 변화를 보여주는 시집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집에 실린 시 중에서 동양의 고대 설화를 수용한 작품으로는 「귀촉도」와 「견우의 노래」가 있다.

눈물 아롱 아롱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비 오는 西域 三萬里.  
흰옷깃 염여염여 가옵신 님의  
다시오진 못하는 巴蜀 三萬里

신이나 삼어줄스걸 숲은 사연의  
올올이 아로색인 육날 메투리.  
은장도 푸른 날로 이냥 베허서  
부즐없는 이 머리털 엮어 드릴스걸.

초롱에 불빛, 지친 밤 하늘  
굽이굽이 은하스물 목이 젖은 새,  
참아 아니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제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그대 하늘 끝 호올로 가신 님아.

- 「귀촉도」 전문

이 시는 중국 촉나라 사람인 망제의 죽은 녀이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새가 되었다는 설화를 수용한 작품으로 동양적인 한의 정서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미당은 입을 떠나 보낸 뒤의 슬픔과 고통의 한을 귀촉도의 울음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1연에서는 임과의 영원한 이별을 말하고 있다. 화자는 임이 가신 곳이 진달래 꽃비 오는 곳으로 아름답게 형상화하고 있지만 심적으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이다. 2연은 화자의 못다한 사랑에 대한 회환을 나타낸다. 살아서 임에게 다하지 못한 사랑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을 한탄하고 있다. 3연은 비극성이 한층 심화되고 있는 부분으로 밤새 슬프게 울부짖는 귀촉도의 울음은 화자 자신의 울음으로 귀촉도는 한의 상징이 된다.

다음은 「견우의 노래」를 살펴보자.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높았다, 낮았다, 추렁이는 물스살과  
물스살 몰아 갔다오는 바람만이 있어야하네.  
오-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푸른 銀河스물이 있어야 하네.

도라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  
불타는 홀몸만이 있어야 하네!

織女여, 여기 번쩍이는 모래 밭에  
돌아나는 풀썩을 나는 세이고...

허이언 허이언 구름 속에서  
그대는 배틀에 북을 놀리게.

눈썹같은 반달이 중천에 걸리는  
七月 七夕이 도라오기까지는,

검은 암소를 나는 떡이고  
織女여, 그대는 비단을 짜는세.

- 「견우의 노래」 전문

견우 직녀의 설화를 수용한 이 시는 견우를 시적 화자로 하여 직녀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시의 전제는 견우와 직녀의 운명적 이별이다. 이 운명적 이별을 견우는 수용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라고 운명적인 이별을 긍정하기까지 한다. 이별이 있어야 사랑은 더욱 깊어진다는 논리에 따라 견우가 직녀를 1년에 한 번 만나고 헤어져 다시 만나는 다음의 날까지의 1년을 기다리기에 그들의 사랑은 오랜 동안 변치 않고 더욱 절실해 질 수 있다. 물살, 바람, 은하물도 두 사람의 사랑을 변하지 않게 하는 매개물이다. 견우와 직녀가 만남을 기다리는 자세는 각자의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다. 그래서 긴 이별의 시간을 만남의 시간으로 기약할 수 있도록 이겨내자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랑에 대한 본질은 설화 속의 두 인물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으로 확산된다.

이처럼 주어진 운명에 체념하고 순응하는 시적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기 위해 차용된 견우와 직녀 설화는 미당에게 새로운 소재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동양적 세계에 대한 관심은 『서정주시선』(1955)까지 이어진다.

이 시집 가운데 설화를 수용한 대표적인 시로는 「추천사」, 「다시 밝은 날

에」, 「춘향유문」 등이 있다. 이 세편은 모두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인 「춘향전」을 수용한 작품으로 일종의 연작시라 할 수 있다. 시적 화자가 모두 춘향으로 동일하며 ‘춘향의 말 1·2·3’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香丹아 그넛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 듯이,  
香丹아

이 다수곳이 흔들리는 흔들리는 수양버들 나무와  
벼갯모에 뇌이듯한 풀꽃땀이로부터,  
자잘한 나비새끼 피꼬리들로부터  
아조 내어밀듯이, 香丹아

珊瑚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彩色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西으로 가는 달 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었다.

바람이 波濤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香丹아

- 「추천사 -春香의 말 壹-」 전문

이 시는 「춘향전」을 시적으로 변용한 작품으로 춘향전 전체의 서사를 시에 선 발견할 수 없다. 서사의 한 장면만 있을 뿐이다. 춘향과 향단 그리고 그네라는 소재의 차용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의식을 드러낸다. 시인은 춘향을 통하여 지상적인 번뇌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다. 「추천사」라는 제목에서 ‘추천’이란 그네를 뜻하는 한자어로 그네는 이 시의 상징물이 된다. 하늘을 향해 높이 올라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네는 고뇌의 세상을 벗어나고자 하지만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과 닮아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네는 단순히 놀이를 위한 그네가 아니라 춘향이 자기 자신을 맡김으로써 지상적인 괴로움과 운명에서 벗어나려는 상징의 그네<sup>57)</sup>로 작용한다.

1연에서 춘향은 먼 바다로 나가는 배와 같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향단에게 그넷줄을 밀라고 한다. 그러나 이미 그넷줄은 묶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밖에 나아갈 수 없다. 이미 상승의 한계는 정해져 있다. 2연에서 춘향이 벗어나고자 하는 대상들이 나오는데 수양버들, 풀꽃데미, 나비새끼, 피고리는 춘향이 지상적인 인연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를 표현하는 소재가 된다. 3연은 춘향이 가고 싶어하는 이상 세계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곳은 산호도 섬도 없는 하늘이다. 하늘이란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자유롭고 무한히 넓은 세계이다. 4연에서 시인은 인간의 운명적 한계에 대한 깨달음을 보여준다. 서쪽으로 가는 달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거침없이 갈 수 있지만 유한한 존재인 인간 춘향은 그렇게 갈 수 없는 것이다. 5연에서 파도는 그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파도도 바람에 의해 높이 솟구칠 수 있지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고 만다는 점에서 그네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향은 계속해서 향단에게 밀어 올려달라고 주문을 한다. 파도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내려오듯이 자신의 소망도 달성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춘향은 지상의 고뇌를 벗

---

57) 김종길, 「추천사의 형태」, 『미당 서정주 연구』, p.45.

어나려는 노력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춘향의 간절한 초월의 의지와 필연적 좌절이 함축되어 있다.

신령님……

처음 내 마음은  
수천만마리  
노고지리 우는 날의 아지랑이 같았습니다.

번쩍이는 비늘을 단 고기들이 헤엄치는  
초록의 강 물결  
어우러져 날르는 애기 구름 같았습니다

신령님……

그러나 그의 모습으로 어느날 당신이 내게 오셨을 때  
나는 미친 회오리 바람이 되었습니다.  
쏟아져 내리는 벼랑의 폭포  
쏟아져 내리는 쏘내기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령님……

바닷물이 적은 여울을 마시듯이  
당신은 다시 그를 데려가고  
그 휘-나한 내 마음에  
마지막 타는 저녁 노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기인 밤을 두셨습니다.

신령님……

그리하여 또 한번 내위에 밝는 날  
이제  
산스골에 피어나는 도라지 꽃같은  
내 마음의 빛깔은 당신의 사랑입니다.

- 「다시 밝은 날에-춘향의 말2-」 전문

이 시는 화자인 춘향이 청자인 신령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시의 의미 구조는 하나의 스토리를 지니고 있는데 기다림-만남-헤어짐-기다림이 그것이다. 처음에 아지랑이 같고 애기 구름 같은 잔잔한 기쁨으로 시작된 춘향의 사랑은 걱정적으로 변하여 미친 회오리 바람이 되고 벼랑의 폭포, 소나기가 된다. 그러나 다시 이별하게 되었을 때는 마지막 타는 저녁 노을과 같은 아쉬움과 그리움, 기다림을 안겨 준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 화자의 마음은 절망 상태를 넘어서 도라지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랑의 시련과 고통을 체험한 후에 보다 강해진 모습으로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의 결정체로 승화된다.

미당은 춘향이라는 고전 소설 속의 인물을 수용하여 시로 형상화함으로써 새로운 효과를 보여준다. 즉 미당은 인간의 한계와 운명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에 적절한 인물로 갈등 요소가 복합된 인물인 춘향을 선택하고 소설의 배경과 소재를 차용하여 시로 형상화하였다. 이렇게 잘 알려진 고전의 시적 수용은 독자들이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전하고자 하는 바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고전 작품이 오랫동안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은 그 내용 속에 세상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보편적인 정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처럼 미당의 고전에 대한 탐구 정신과 불교적인 상상력 그리고 전통적 세계관이 그의 시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 『서정주시선』은 『화사

집』으로부터의 의식의 변모를 확인해 주며, 동시에 이후의 그의 시집 『신라초』, 『동천』 『질마재신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통적인 설화를 통한 영원주의와 토속적이고도 원형적인 설화가 있는 질마재 이야기로 나아갈 가능성을 보여준다.

미당의 시 의식의 변화는 『신라초』, 『동천』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그가 인생관 정립을 위해 정신적 지주로 삼은 것이 신라, 신라정신이라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미당은 1951년 여름 전주에서 다량의 학질약을 복용하고 자살을 기도한다. 이 자살 기도로부터 겨우 회생된 미당은 이때부터 신라 설화에 매력을 느끼고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같은 신라 관계 문헌을 정독하였다. 이후 그는 1952년 봄부터 이듬해 가을까지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신라 연구를 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신라 설화에 몰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라 설화에의 몰입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sup>58)</sup>

그러나 그가 직접적으로 신라의 풍류에 매력을 가진 직접적인 원인은 최치원의 「난랑비서(鸞郎碑序)」라는 글이다. 최치원은 이 글에서 “이 나라에 참 묘한 인생의 길이 있어서 그걸 풍류라 하니 그 가르침의 내력은 선사라는 책 속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그 정말의 내용은 3교의 뜻하는 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니, 사람들을 가르침에서 ‘집에 들면 거기 효도를 다하며, 나가면 나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함은 중국 노나라의 공자님의 뜻 그대로요, 자연스러히 지내며 말보다 더한 진실로 사는 걸 가르친 것은 주나라의 노자의 가르침 그대로요, 모든 악의 뿌리를 생겨나지 못하게 하여 착하게만 살게 하는 것은 네팔의 왕태자였던 석가모니의 감회와 같으니라”라고 했는데 이를 보면 결국 신라의 풍

58) 서정주, 『미당 시전집2』 (서울 : 민음사, 1994), p.1007.

이 연구는 1954년의 동국대 강의, 1958년의 논문 「신라 연구(1) : 신라인의 지성」, 1960년의 교수 자격 청구 논문인 「신라 연구」 등으로 이루어진다.

류 정신 속에는 유·불·선 3교의 중요한 정신이 두루 다 포함하고 있다.<sup>59)</sup> 풍류와 함께 그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신라의 영원주의이다. 신라인들은 현실만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영원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모랄이나 감정을 정립해 나갔다. 다음 글은 미당이 추구한 영원주의를 적절히 규명하고 있다.

그의 신라정신이란 고답적인 종교적 초월의 세계나 역사의 하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적 사랑과 욕망이 살아 움직이는 현세적 삶에 대한 긍정이며 사랑이고, 또한 인간 존중의 정신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 대지적인 것에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려는 노력을 통해서 하늘이 표상하는 영원의 세계에 도달하려는 이념지향성을 함께 지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인간애의 정신에 바탕을 두되, 그러한 것들의 상승과 초월을 꿈꾸는 정신이 바로 신라정신이며 영원주의에 해당하는 것이다.<sup>60)</sup>

이러한 미당의 풍류 정신과 영원주의는 이후 불교의 윤회설이나 인연설로 확대되어 미당의 문학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sup>61)</sup> 그 결과 설화에 대한 관심과 몰입은 『신라초』와 『동천』에 집약되었다. 『신라초』에 설화를 수용하여 신라, 신라정신을 시화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지귀 설화를 수용한 「선덕여왕의 말씀」, 사소 설화를 수용한 「꽃밭의 독백」, 「사소 두 번째 편지 단편」, 연오랑 세오녀 설화를 수용한 「해」, 호접(胡蝶)설화를 소재로 한 「숙영이의 나비」, 불교의 윤회 설화를 수용한 「인연설화조」 등이 있다.

59) 박호영, 앞의 책, p.76 재인용.

60) 김재홍, 앞의 책, pp.336-338.

61) 김윤식, 거울화의 두 양상, 『현대문학』(1976.3), p.249.

김윤식은 미당이 1950년대 이후 영원성의 문제에 집착하게 된 이유를 6·25전쟁과 관련하여 “근대지향성의 일방적 횡포”라는 현실을 “고대적인 시간 개념의 재생”을 통해 돌파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먼저 지귀설화를 소재로 한 시 「선덕여왕의 말씀」을 살펴보자.

朕의 무덤은 푸른 嶺 위의 欲界 第二天  
피 예 있으니, 피 예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구름 엉기고, 비 터잡는 데-그런 하늘 속.

피 예 있으니, 피 예 있으니,  
너무들 인색치 말고  
있는 사람은 病弱者한테 柴糧도 더러 노느고  
홀어미 홀아버들도 더러 찾아 위로코,  
瞻星臺 위엔 瞻星臺 위엔 그중 실한 사내를 뇌라.

살(肉體)의 일로써 살의 일로써 미친 사내에게는  
살 닿는 것 중 그중 빛나는 黃金 팔찌를 그 가슴 위에,  
그래도 그 어지러운 불이 다 스러지지 않거든  
다스리는 노래는 바다 넘어서 하늘끝까지.

하지만 사랑이거든  
그것이 참말로 사랑이거든  
서라벌 千年의 知慧가 가꾼 國法보다도 國法의 불보다도  
늘 항상 더 타고 있거라.

朕의 무덤은 푸른 嶺위의 欲界 第二天  
피 예 있으니, 피 예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구름 엉기고, 비 터잡는 데- 그런 하늘 속.

내 못 떠난다.

- 「선덕여왕의 말씀」 전문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수이전』 등에 나타나는 역사적 사실 및 설화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 시는 선덕여왕과 선덕여왕을 짝사랑하던 지귀와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지귀는 신분의 귀천을 넘어서 순수하게 선덕여왕을 짝사랑했고, 선덕여왕은 무례를 저지른 그에게 국법에 의한 엄한 벌 대신에 그녀의 황금 팔찌를 벗어 그에게 주었다. 지귀의 불같은 팔찌로 인해 더욱 마음으로 불 타 결국 탑을 불태워 버렸다.

먼저 1연은 『삼국유사』를 바탕으로 해서 사후의 선덕여왕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사후의 선덕여왕 목소리를 제시하여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시의 배경이 육계 2천은 불교에서 말하는 3계(欲界, 色界, 無色界) 가운데 색욕, 식욕, 재욕이 강한 중생들이 머무는 6천(六天)중 둘째 하늘인 도리천(忉利天)을 지칭한다. 선덕여왕의 무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아무리 왕의 신분일지라도 죽으면 중생들이 머무는 곳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선덕여왕의 모습은 신성스러운 초월적 존재성을 띠지 않는다. 이것은 선덕여왕의 인간주의적 면모를 집약적으로 제시<sup>62)</sup>한 것이다. 2연은 『삼국사기』 제5권, 신라본기의 「선덕왕」와 관련된다. 즉, 선덕여왕의 성품이 관인하여 사리에 밝고 현명함을 말하고, 아울러 그가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대한 위로와 구휼에 힘썼다는 내용을 말한다. 다시 말해 선덕여왕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3연은 앞에서 말한 지귀와 선덕여왕의 애기로 신분과 윤리 등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선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 말한다. 4연은 다시 『삼국유사』 제1권의 태종춘추조와 관련된다. 즉 김춘추와 김유신의 누이 사이에 있었던 국법을 어긴 사랑의 행위를 용서하는 선덕여왕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소중함과 영원함을 강조한 것이다. 5연은 첫 연을 다시 반복 강조하며 “내 못 떠난다”라는 단 한 행으로 이루어진 마지막 6연은 인간 세계에 대한 강한 긍정과 애착을 다시 확인한다.

62) 김시태, 「서정주 시의 역설적 의미」, 『서정주연구』, p.358.

이렇게 본다면 이 시는 선덕여왕을 둘러싼 역사 및 설화적 사실들을 소재로 하여 미당의 상상력을 자유로이 구사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시는 신라 시조인 박혁거세의 어머니 사소의 신화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노래가 낮기는 그 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벗어버렸다.  
황로 잡은 山돼지, 매로 잡은 山새들에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꽃아. 아침마다 開關하는 꽃아.  
내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낫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해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닫힌 門에 기대섰을 뿐이다.  
門 열어라 꽃아. 門 열어라 꽃아.  
벼락과 海溢만이 길일지라도  
門 열어라 꽃아. 門 열어라 꽃아.

- 「꽃밭의 독백 - 사소 단장(娑蘇 斷章)」 전문

이 시는 '사소단장'이란 부제가 붙어 있는 작품이다. 사소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로 결혼 전에 잉태하여 산으로 신선 수행을 간 일이 있는데 이 시는 그 길 떠나기 전 그의 집 꽃밭에서의 독백을 시화한 것이다. 1행부터 4행까지는 한계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노래는 구름이 떠 있는 이상을 넘어설 수 없고 말이 빠른 말 역시 바닷가에 이르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사냥도 다양한 짐승을 잡는다 해도 입맛이 허구한 날 생길 리가 없다. 이러한 한계를 화자는 꽃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꽃은 지상에 피어 있는 생명이면서 동시에 영원에 이르는 길이다. 따라서 꽃은 지상으로부터 영원에 이르는 통로이자 동시에 영원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곳으로 가는 길이 바람과 해일을 만나는 역경의 길일지라도 화자는 절대가치의 세계를 지향하는 자세를 취한다. 이것은 곧 미당이 신라 설화를 통해 자신의 새로운 정신세계의 지향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시는 설화의 이야기적 요소를 초월하고 있고 또한 사소의 내면의식을 표상해 내고 있기 때문에 '사소단장'이란 부제나 신선수행을 떠나기 전의 독백이라는 설명이 없이는 설화적 발상이라는 것을 거의 알 수 없을 정도로 시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미당이 굳이 사소라는 신화적 인물을 선택한 이유는 사소라는 성모를 통해 시공을 초월한 영원성과 원초적이며 무한회귀적인 생명의식을 고양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sup>63)</sup> 처녀로 잉태한 사소는 영원의 세계와 영통하는 인간정신의 상징적 구체화이다. 사소는 신라의 구모 즉, 선도산신모(仙桃山神母)로서 현실과 영원을 이어주는 힘을 소유한 것이다.

다음의 시 「해」를 보면,

新羅聖代 昭聖代

阿達羅의 임금 때

해는 廷鳥의 아내 細鳥의 배틀에 가 매달려서도 살았다.

하늘에다 잉아를 이 女人이 먼저 걸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 이 여인과 緋緞이 어딜 가며는, 해도 그리로 따라 다녔다.

新羅人들은 이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날은 돌이 엮고 일본으로 간 것을 쫓아가서 緋緞배만 찾아다가 놓았다.

- 「해」 전문

63) 신병은, 신화적 인물의 시적 변용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1985), p.15.

이 시는 삼국유사의 「연오랑 세오녀」를 수용한 작품이다. 미당은 이처럼 태양 신화인 「연오랑 세오녀」 설화를 시에 수용함으로써 신라인의 높은 이상과 영원을 향한 동경을 형상화하였다. “해는 연오의 아내 세오의 배틀에 가 매달려서도 살았다./ 하늘에다 잉아를 이 女人이 먼저 걸어 놓았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에서 엿볼 수 있듯이 연오랑의 귀비 세오녀는 하늘에다 잉아를 걸 수도 있었으며 또 그녀가 짝 고운 명주 비단은 하늘의 태양이 될 수도 있었다. 여기서 세오녀가 ‘하늘에다 잉아’를 매고 있는 것은 곧 무한성을 향한 영원의 지향이며, ‘해’와 ‘여인’과 ‘비단’을 한 데 연결한 것은 영원과 현실과의 연계성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동천』에 실린 시들 중 설화를 수용한 작품으로는 불교 인연 설화를 수용한 작품 이외에도 수로 부인 설화를 소재로 한 「수로부인의 얼굴」, 죽통미녀 설화를 수용한 「피는 꽃」, 반혼 속신을 수용한 「외할머니네 마당에 올라 온 해일」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영취사에 얽힌 설화를 배경으로 한 「무제」나 신호거사의 설화와 대성(大城)의 설화 두 편을 수용한 시 「여행가」 등이 있다.

## 1

암소를 끌고 가던  
수염이 흰 할아버지가

그 손의 고삐를  
아조 그만 놓아 버리게 할만큼,

소 고삐 놓아 두고  
높은 낭떠러지를  
다람쥐 새끼같이 뽀르르르 기어오르게 할만큼,

기어 올라 가서  
진달래 꽃 꺾어다가

노래 한 수 지어 불러  
갖다 바치게 할만큼,

2

亭子에서 點心먹고 있는 것  
옛 보고  
바닷속에서 龍이란 놈이 나와  
가로 채 엮고  
천길 물속 깊이 들어가 버리게 할만큼,

- 「수로부인의 얼굴」 부분

<미인을 찬양하는 신라적 어법>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작품에서 미당은 원래의 설화보다도 수로부인의 아름다움을 더욱 두드러지게 강조함으로써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꿈꿀 수 있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벼랑의 꽃을 꺾어 올 수 있는 상황을 강조함으로써 상식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신라인의 미의식을 보여 준다. 이는 역설적으로 신라인의 초월적인 사랑 혹은 신라인의 미(美)라는 이상의 절대 경지를 빌어다가 현실 세계의 천박한 미의식이나 순간적인 사랑 등과 대조시켜 보여줌으로써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시 「무제」는 영취사에 얽힌 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매가  
평의 일로서  
울던 데를 이야기 할테니  
우리 나라 繡 실로  
마누라 보고 베킵모에 繡 놓아 달래서  
벼고 쉬게나.  
눈물을 아조 잘 繡 놓아 달래서  
벼고 쉬게나.

- 「무제」 전문

이 시는 『삼국유사』 「靈鷲寺」 조(條)에 실린 이야기를 시화한 것이다. 서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절의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사람들이 매를 놓아 평을 잡아오게 했는데 매가 날아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방울소리를 듣고 찾아가니 굴정현(屈井縣) 관청 북쪽 우물가의 나무에 매가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우물을 보니 우물물이 핏빛이었고 우물 속에는 평이 날개를 벌려 두 마리 새끼를 안고 있었다. 평도 이것을 측은하게 여겨 감히 잡지 않았다. 이곳에 절을 세워 영취사(靈鷲寺)라 했다.<sup>64)</sup>

평을 잡는 사나운 매가, 날개를 벌려 새끼 두 마리를 안고 있는 어미 평의 모성애를 측은히 여겨 평을 잡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감동하여 절을 세웠다는 신라인들의 이야기에서 미당은 큰 깨달음을 얻는다. 이러한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하는 설화를 수용하여 생명 경시 풍조와 대조시킴으로써 한 차원 높은 정신 세계를 보여준다.

---

64) 일연, 『삼국유사』 권1, 이민수 역 ( 서울 : 을유문화사, 1994), p.359.

살펴본 바와 같이 『신라초』나 『동천』에는 신라인의 태도에 영향을 받은 미당이 신라 설화를 소재로 하여 시화한 작품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그가 신라 정신에 매료되고 몰두한 결과이다. 그가 신라에 몰두한 이유는 주로 인간존의 영원성을 믿는 고대적 사유와 관련된다. 이처럼 그가 전통 설화를 소재로 한 시를 쓴 것은 민족적 원형을 재구성하여 그 초시간적인 투시를 통해 동일성과 영속성의 감각을 되살리려는 데서 연유한다. 그러므로 미당의 영원성에 대한 집착은 극심한 체험의 모순을 극복하고 자아의 영속성과 동일성을 회복하려는 정신적 투쟁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sup>65)</sup>이렇게 볼 때 그가 후기시로 가면서 시의 형식적인 틀마저 해체하고 원형적인 세계 자체의 복원을 보다 과감하게 밀고 나간 질마재 세계로 진입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질마재 신화』는 시인의 말대로 ‘자기가 생겨 난 고향 마을’에 내려오는 설화들을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신라초』나 『동천』의 시들과 구별된다. 이 시집이 출간된 것은 1975년 그의 나이 회갑에 이른 때이다. 공자가 말한 정신 성장과정의 이순(耳順)을 굳이 연관시키지 않더라도 대체로 이 나이가 되면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고 자신의 고향 생각이 많이 나고 돌아가고 싶어진다. 미당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의 회고<sup>66)</sup>는 고향으로 회귀하고 싶은 그의 마음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고향 회귀의 마음이 고향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에 집착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미당은 어릴 때 들어왔던 이야기나 마을에 떠도는 이야기를 시로 재구성했다. 이 때 그는 응결된 형식을 버리고 이야기의 형식을 그대로 드러낸 산문체로 시를 썼다.<sup>67)</sup> 미당의 상상력은 ‘질마재’라는 공간을 단순히 개인적인

65) 이광호, 영원의 시간, 봉인된 시간 : 서정주 중기시의 <영원성>문제, 『미당연구』, p.378.

66) 『서정주 문학전집 4』, pp.266-271, 『서정주 문학전집 5』, pp.296.

67) 이 점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상반된 견해가 제시된 바 있는데 비관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피하고 대표적인 견해만 간

공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영원한 공간, 보편적인 정서가 있는 공간으로 확대시킨다. 따라서 『질마재 신화』에서 미당은 고향 마을의 이야기에서 민족의 보편적이고도 원형적인 정신을 찾고자 했다. 질마재 마을의 설화가 어떻게 시화되었는지 작품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新婦는 초록저고리 다홍치미로 겨우 귀밑머리만 풀리운 채 新郎하고 첫날밤을 아직 앉아 있었는데, 新郎이 그만 오줌이 급해서 냉큼 일어나 달려가는 바람에 옷자락이 문 돌쩌귀에 걸렸습니다. 그것을 新郎은 생각이 또 급해서 제 新婦가 음탕해서 그 새를 못 참아서 뒤에서 손으로 잡아다리는 거라고 그렇게만 알곤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 버렸습니다. 문 돌쩌귀에 걸린 옷자락이 찢어진 채로 오줌 누곤 못 쓰겠다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四十年인가 五十年인 지나간 뒤에 뜻밖에 땀 불일이 생겨 新婦방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新婦는 귀밑머리만 풀린 첫날밤 모양 그대로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로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스러운 생각이 들어 그 어깨를 가서 어루만지니 그때서야 매운재가 되어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초록 재와 다홍 재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 「新婦」 전문

---

추려 제시한다. 김경희는 “미당이 시의식이 결여된 채, 단순히 설화를 전달하려는 의지만을 앞세워 서술과 설명으로 일관함으로써 수필의 분절이 되고 말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였다.(김경희, 미당 시에 나타난 설화적 모티브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91-97). 김준오는 “서정 양식인 시와 서사적 줄거리와구성 양식을 갖는 설화와의 차이 때문에 미당의 시에 장르적 신뢰성을 부여하는 데 혼란이 야기된다”고 하였다.(김준오, 『시론』 [문장, 1982] : 17). 김선학은 이야기인 설화가 시로써 성공하기 힘든 하나의 과제임을 전제하고 그러나 『질마재 신화』의 「신부」를 예로 들어 “시인의 상상력과 탁월한 언어적 구사 능력을 통해 시적 설화가 창조될 때 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선학, 설화의 시적 변용: 『질마재 신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3집] : 382-391).

시의 서사적 맥락은 구전설화 황씨부인당 전설과 유사하다.<sup>68)</sup> 그리고 조금의 변형은 있어도 첨가도 생략도 없다. 시는 화자가 청자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시를 읽는 독자는 그저 한편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 시에서 느껴지는 서사성은 시의 규칙에서 위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사건의 재구술이 아니다. 거기에는 시인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대담한 언어구사가 있다. 이 시가 훌륭히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언어의 압축이나 생략이 아니라 시간의 압축·생략 때문이다.<sup>69)</sup> 이 시에는 바로 시간의 압축과 생략이 절묘하게 어울려 하나의 훌륭한 산문시가 된다.

이 시에서 보여지는 세계관은 유교적 도덕관에 입각한 여필종부의 세계관이다. 한 여자는 오로지 한 남편을 섬겨야 한다는 윤리에 얽매어 신랑이 오해를 하여 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평생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신랑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신랑을 기다리며 쌓인 한과 설움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안으로 삭이고 있다가 비로소 신랑이 40년 내지 50년 만에 돌아와 만져 주니 매우 재로 내려앉아 버렸다. 40년 내지 50년의 기다림의 세월을 단순한 숫자의 개념이 아닌 한 여자의 일생으로 본다면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전통적인 여인의 한을 그린 작품이다. 미당은 압축과 생략을 언어자체에 투영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서사성에 입각하여 시간의 압축, 생략이 효과적으로 그려지면서 그 속에 한국 여인의 보편적 한의 정서까지 담아내고 있다.

68) 황씨부인당 전설의 줄거리는 “신랑이 정당한 사유라기 보다는 오해 때문에 신부를 버리고 달아났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다 숨이 켜지만 몇십년이나 시신이 삭지 않았다. 신랑이 다시 찾아 왔을 때에야 겨우 시신이 재로 풀렸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김열규는 이 설화를 “원한을 품고 죽으면 주검이 삭을 수도 없고 눈도 감지 못한다는 속신을 담은 것”으로 밀양 아랑각전설이나 장화홍련전과 유사한 계열의 이야기로 보았다.(김열규, 『한국의 전설』 (서울 : 삼성인소주식회사, 1980), p.46.

69) 김선학, 韓國 現代詩의 詩의 空間에 關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9), p.91.

질마재 上歌手의 노랫소리는 답답하면 열두 발 상무를 짓고, 따분하면 어깨에 고깔 쓴 중을 세우고 또 喪輿면 喪輿머리에 띄약벌 같은 낫쇠 요령 흔들며, 이승과 저승에 뺨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를 안하는 어느 아침에 보니까 上歌手는 뒀간 똥오줌 항아리에서 똥오줌 거름을 옹겨 내고 있었는데요. 왜, 거, 있지 않아, 하늘의 별과 달도 언제나 잘 비치는 우리네 똥오줌 항아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붕도 앞세 작파해 버린 우리네 그 참 재미있는 똥오줌 항아리, 거길 明鏡으로 해 망건 밑에 염발질을 열심히 하고 서 있었습니다. 망건 밑으로 흘러내린 머리털들을 망건 속으로 보기 좋게 밀어 넣어 올리는 쇠뿔 염발질을 점잔하게 하고 있어요.

明鏡도 이만큼은 특별나고 기름져서 이승 저승에 두루 무성하던 그 노랫소리는 나온 것 아닐까요?

- 「上歌手의 소리」 전문

미당은 질마재 마을의 인적 구성을 유학파·자연주의파·심미파로 분류한 바 있다. 이들 세 부류 가운데 심미파는 곧 예인을 뜻한다.<sup>70)</sup> 이 시는 그 중 심미파에 속하는 예인 상가수의 이야기이다. 상가수는 여러 가지 재주를 겸비하고 있는데 농악놀이에서 병거지 끝에 열두 발이나 되는 상모를 달고 돌리기도 하고, 고깔 쓴 중의 형상을 하기도 하며, 상여가 나갈 때 그 앞에서 낫쇠 요령을 흔들기도 한다. 어찌나 노래가 뛰어난지 그의 노래는 이승에서 저승까지 뺨쳐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러한 상가수도 노래 안 하는 때는 똥오줌 항아리에서 똥오줌 거름을 걸러 내는 일을 한다. 그러다가 똥오줌 항아리를 거울삼아 머리를 다듬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미당은 이승에서 저승으로 들어가는 상여를 인도하는 상가수에게서 일상성을 뛰어넘는 자유분방함을 느끼며 자기동일성을 회복한다.<sup>71)</sup>여

70) 『서정주 문학전집 5』, p.271.

71) 유혜숙, 서정주 시 연구 : 자기 실현 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1994), p.62.

기서 미당은 일상적으로 기대되고 예상되는 상가수의 사생활에 대한 인식을 뒤 바꾸어 놓음으로써 신화적 원형을 보이는 한편 우리 민족의 삶의 애환을 그려 내고 있다.

『질마재 신화』에 수록된 33편의 시들은 미당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구체적인 삶과 밀착되어 있다. 이처럼 미당은 자신과 자신의 고향으로 눈을 돌리면서 기존의 설화를 수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유년 시절의 경험들을 시 속에 빚어 넣음으로써 새로운 신화를 창조한다. 따라서 미당이 『질마재 신화』에서 보여주는 신화 창조의 시 세계는 『화사집』시절부터 끊임없이 추구해 온 인간 원형 탐구를 위한 노력이며, 동시에 미당 문학 세계의 완성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시에 설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시인의 탁월한 상상력과 언어 구사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서정주가 고대인들의 설화를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시로 형상화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미당에게 있어 시로 형상화되기 위해 선택된 설화는 시인의 시 정신 즉 문학세계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발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미당에게 있어서 첫 시집인 『화사집』에서 시작된 설화 수용은 『귀축도』·『서정주 시선』·『신라초』·『동천』을 거쳐 그의 문학 세계가 완성되었다고 평가되는 『질마재 신화』에 이르기까지 시적 상상력의 원천이 되었으며, 그의 문학 세계를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형상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또한 고전 소설 「춘향전」, 선덕여왕과 지귀의 설화, 견우와 직녀 이야기 등 우리 민족에게 오랫동안 전승되어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설화를 시에 수용함으로써 시인의 개인적인 정서를 보편적인 정서로 확장시키고 나아가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설화를 수용하는 시 작업을 통해 전통 소재인 설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설화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미당이 서구의 영향을 극복하고 전통 설화를 수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전통 단절론을 극복하고 전통 설화가 현대 시문학에 계승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미당의 풍류 정신은 인간과 자연과 예술과 종교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 현장 교육에서 강조하는 생태학적 상상력이나, 우리 고유 사상을 통한 민족의 정체성 찾기와 관련하여 그 문학적 의의뿐만 아니라 교육적 의의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설화 모티프 수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다면 학생들이 미당 시를 감상하는데 있어서 보다 유익할 것이다. 또한 설화라는 이야기가 갖는 서사적 특성이 시에서는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비교해 봄으로써 시적 언어의 특성과 매력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Ⅲ. 주제별 교수법의 모색

현재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는 18종류가 있으며 이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학습하게 되므로 채택한 교과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서정주 관련 단원의 학습 활동은 부분적으로 다르게 전개된다.

본 연구는 어느 하나의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하나만을 가지고 감상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교사에 의해 선택된 작품과 재구조화된 교육과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먼저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알아보고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려 한다.

서정주의 시는 18종 문학 교과서에 모두 11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작품은 본 단원에서 다루어진 것과 본문의 설명 중에 삽입된 것 그리고 교과서 밖 핵심작품으로 수록된 것 등이며 총 18종 중에서 4종만이 서정주 작품이 수록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서정주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본문에서 가장 많이 수록된 작품은 「추천사」, 「신부」인데 각각 네 곳의 교과서에 실려 있다. 교과서에 실린 서정주 시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수록 횟수)

「화사」(1), 「자화상」(1), 「귀축도」(1), 「무등을 보며」(2), 「견우의 노래」(1), 「추천사」(4), 「춘향유문」(1), 「꽃밭의 독백-사소단장」(1), 「동천」(2), 「신부」(4)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작가들의 수록 횟수나 작품량에 비해 서정주 작품들이 다양하게 수록된 것은 시인의 문학사적 비중이나 교육적 효과 등이 반영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수록된 시들은 대부분 우리의 전통 설화를 시적으로 승화한 작품들이다. 이렇게 설화를 시적으로 승화시킨 작가의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작품들을 상호 연계성으로 심화 학습할 수 있는 배려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좀 더 포괄적인 심화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철저한 수업 준비와 재구성의 노력이 필요하다.

문학 교과서의 학습 목표와 학습활동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의 문항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① 시어의 내포적 의미와 상징 해석
- ② 화자의 정서 이해
- ③ 시의 형식상, 운율상 특징 이해
- ④ 설화를 원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 파악

그러나 이들은 모두 개별적인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으로 서정주 시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시를 중심으로 주제별로 나누어 감상해 보고 텍스트 상호 간의 비교 분석 과정을 고려한 교수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시의 주제는 시 속에 함유된 여러 의미 중 가장 중심적인 내용으로 이것은 시인이 서정적 자아를 통하여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시인의 중심 생각이며, 시인의 인생관이나 세계관, 때에 따라서는 시인이 살던 시대 정신을 말하기도 한다. 시의 주제는 시 텍스트 전체의 의미를 드러내면서 학습자가 시의 의미를 자신의 삶과 관련짓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시 교육에서 학습자가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시의 주제는 시 텍스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거나, 시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해설도 아니다. 또한 시 교육에서 학습자가 찾아야만 하는 특별한 시인의 의도도 아니다. 시 텍스트는 일

상적인 삶을 함축적인 시어를 통해 형상화하기 때문에 시의 주제는 공적이고 사적인 삶의 경험들을 다룬다. 따라서 시 텍스트의 주제를 찾기 위해서 학습자는 일차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유보한 채, 시 텍스트를 계속 읽어나갈 필요가 있다. 시 텍스트를 계속적으로 읽어가면서 모호하게나마 시의 주제에 대해 말함으로써 점차 시 텍스트가 의미하는 핵심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 주제는 중요하고 일상적인 것들을 다루지만 이것을 단순하게 형상화하지 않고 함축적인 시어를 통해 복잡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시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요소들로는 시적 자아, 어조, 분위기, 시적 표현 등이 있다. 이 중 시적 자아는 시의 주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것은 시인의 생각이 시적 자아를 매개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를 읽을 때에는 시적 자아가 누구인지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시의 어조나 분위기 역시 시인의 의도가 정서를 통해 표현된 것이므로 시의 주제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시적 표현은 미묘하고 섬세한 감정이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시인이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비일상적인 언어의 결합, 비유, 상징, 감정 이입, 시적 허용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요소들도 시의 주제를 파악하는데 매우 긴요하게 작용한다. 시의 주제가 직접 드러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주로 심상이나 비유, 상징 등을 통해 암시적으로 형상화된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시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인이 자신의 정서를 시적 자아를 통해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며 언어의 지시적 의미만이 아니라 함축적 의미를 함께 고려하고 작품의 독특한 어조나 분위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시의 주제를 찾아내는 것은 우리 삶의 얽힘을 해명하는 것이며 나아가 타자와 얽혀 있는 자신의 삶을 풀어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시 교육에서 시의 주제를 찾는 것은 단순히 텍스트 분석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통해 자기 내면의 성숙을 위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미당 시를 주제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시 감상 of 실제에서는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활동으로 나누어 읽기 전 활동에서는 주제 범주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였고, 읽기 중 활동에서는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작품의 이해를 도왔다. 읽기 후 활동에서는 주제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제시해 보았다.

## 1. 자아인식

미당의 「자화상」<sup>72)</sup>은 그가 23세에 쓴 작품이다. "아버지는 종이였다"라는 첫 행이 도발적이어서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실제 미당의 부친이 남의 집의 종이였느냐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사실과는 다르다. 그의 부친은 전남의 부호 김성수 집안의 농지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남의 집 일을 대신 보아주는 위치에 있었지만 종은 아니었다. 이러한 진술 배경에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천형의 죄의식에 시달리며 23세의 나이로 젊음의 절정을 보내던 시인의 과장된 표현으로 보면 미당 초기 작품의 시적 수사가 직접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왔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미당의 말대로 우리 농촌 산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옛 조선 사람들의 자화상을 미당이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행 다음으로는 궁색한 집안의 모습이 묘사된다. 하얗게 늙은 할머니. 입덧을 하는 어머니. 손톱이 까만 어린 아들이 집안에 남아 있는 가족의 전부이다. 그들은 이를 데 없이 가난하고 기력이 없고 누추한 곳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1

---

72) 시 전문은 이 논문 p.21.

연에서는 신분과 궁핍했던 가정 형편을 밝힘으로써 가난이 주는 고통이 자신을 규정한 한 요소였음을 말하고 있다.

2연에서 ‘나’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스물세햇동안 나를 키운 건 팔팔이 바람”처럼 수난과 역경, 방황과 떠돌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방황과 시련 속에서 살아온 나이기에 세상을 대하는 것이 부끄럽기만 하다고 고백한다. 이 부끄러움은 운동주의 경우처럼 자아의 순결성에 바탕을 둔 부끄러움이 아니라 현실적 죄의식에 바탕을 둔 부끄러움이다. 말하자면 바람에 휩쓸려 이리저리 살아왔기에 남에게 떳떳하게 나설 만한 일을 하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에게 죄인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천치의 모습을 보기도 한다. 그러나 가혹하게 스스로를 인식하면서도 결코 뉘우치치 않겠다고 말한다. 그것은 주어진 운명에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연에서 찬란한 아침과 더불어 맞게 되는 시의 이슬이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엔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기 마련이다. 이것은 가난과 시련, 방황과 갈등에 시달리면서 시 한 줄에 피의 의미,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왔고 나아가고 있는 젊은 날의 초상이 시의 이슬과 몇방울의 피로 상징화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젊은 날의 모습은 “벗이거나 그늘이거나 햇바닥 느러트린/병든 숫개 만양 혈덕이며 나는 왔다”와 같이 관능과 자학, 힘겨움과 고달픔, 흥분과 우울 및 피로가 뒤엉킨 표정으로 각인된다.

#### ▶ 시 감상의 실제

모든 시에는 삶에 대한 시인의 태도가 나타나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중 ‘자화상’을 소재로 한 시의 경우에는 시인의 삶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시인의 자화상은 시인이 살았던 시대뿐 아니라 그 시대를 헤쳐나가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 읽는 이에게 삶의 방향을 제공하는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나

는 누구인가'는 시인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삶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제시된 텍스트를 중심으로 시에서의 화자의 삶을 이해하고 학생 스스로 자아 성찰의 기회를 갖게 한다.

### ① 읽기 전 활동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하덕규의 '가시나무'를 들려준다.<sup>73)</sup> 이 노래를 듣고 가사의 의미를 되새겨 봄으로써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 ② 읽기 중 활동

작품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찾아보게 한다.<sup>74)</sup> 이러한 질문들이 자동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반복한다.

#### ● 사실적 질문

-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목과 관련하여 알아보자.
- 가족의 삶의 모습을 묘사한 구절을 찾아보자.
- 나의 행동에 대해 못사람들이 평가를 내린 부분을 찾아보자.
- 시인의 구체적인 자화상을 나타내는 시어는?

---

73) 하덕규의 노래인 '가시나무'는 7차 교육과정의 『국어 (하)』 162면에 가사가 수록되어 있다. 4단원 효과적인 표현의 준비학습으로 첫째, 이 가사 속의 '나'는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추측해 보자. 둘째, 이 가사가 자신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이렇게 2문항이 제시되어 있다. 이 작품을 통해서 학생들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74) 읽기 중 활동의 문제들은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것들을 토대로 하였고 필요에 의해 만들기도 하였다.

● 추론적 질문

- 나는 나 자신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 아침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 가족들이 처한 상황으로 보아 나의 출생 배경은?

● 비판적 질문

- 시인과 화자가 동일한 존재임을 가정할 때, 시인의 지나온 삶의 태도에 대해 논해보자.

● 창의적 질문

- 바다에 나간 외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각자 생각해 보자.

③ 읽기 후 활동

자아인식이라는 주제를 내면화하기 위해서 김광규의 시 「나」를 제시하고 다 같이 읽어 본 후에 패러디하여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써보도록 한다. 또는 자아인식이라는 주제에 해당하는 다른 작가의 작품- 윤동주의 「자화상」, 이상의 「거울」-과 비교하여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 대조해 보도록 한다.

## 2. 사랑의 지고성

「견우의 노래」<sup>75)</sup>는 전래 설화인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를 통하여 사랑의 속성을 노래한 작품으로 설화의 모티프를 우리들의 삶의 국면 그것도 사랑의 국면으로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상상력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준다. 이 시는 겉으로는 견우와 직녀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 담긴 상황은 사랑하면서도 만나지 못하는 남녀의 보편적 감정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는 한편의 훌륭한 연가로 자리잡을 수 있다.

「추천사」<sup>76)</sup>는 이 시의 부제가 보여 주는 것처럼 춘향이 향단과 그네를 타면서 독백 형식으로 엮은 노래이다. 『춘향전』에 의하면 ‘그네’는 춘향과 이도령의 만남의 계기로 기능하고 있으며 서로 타인이었던 두 사람의 관계를 연인의 관계로 변화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 시에서도 역시 그네는 단순한 놀이 기구가 아닌, 춘향이 자기 자신의 괴로움과 운명을 벗어나려는 수단으로서, 즉 괴로움과 고통, 번민의 현실 세계로부터 벗어나 조화로운 이상 세계에 도달하기 위한 매개체인 것이다.

그렇다면 춘향의 고통과 번민의 내용은 『춘향전』의 이야기 줄거리에 집착한다면 이는 기생의 딸로 태어난 신분상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을 그렇게 도식적으로만 이해하려 든다면 그것은 매우 피상적인 견해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춘향이 벗어나고 싶어하는 세상은 환멸의 대상이 아닌, 수양버들과 풀꽃더미, 자잘한 나비 새끼, 피꼬리 등으로 표현된 아름다운 곳으로서 오히려 애착의 대상일 수가 있으며 더욱이 현실을 벗어나 도달하려는 이상 세계는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이며, ‘아무래도 갈 수가 없는’ 곳이기

---

75) 시 전문은 이 논문 p.38.

76) 시 전문은 이 논문 p.40.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는 현실을 초극하려는 의지와 현실에 대한 애착 사이에 놓인 심리적 갈등을 그리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네'는 바로 이들 사이를 왕복하게 한다. 천상 세계를 꿈꾸면서도 끝내 인간이 사는 지상을 떠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적 한계를 느끼게 한다.

따라서, 춘향의 고통과 번민은 역설적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고 싶지도 않은 사랑의 아픔과 번민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 시 「춘향유문」과 마찬가지로 그 시적 모티프는 고전 소설인 『춘향전』에서 찾았으나 오히려 『춘향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력을 보여 준다. 즉, 이 시에서는 인물의 전형성을 부여하기보다는 우리들의 정감 속에 살아 있는 어떤 여인, 사랑의 괴로움과 갈등에 빠진 한 여인의 보편적 이미지로서 다가온다.

「춘향유문」<sup>77)</sup>은 죽음을 앞둔 춘향이 이몽룡에게 유서 형식으로 쓴 작품이다. 이몽룡이 월매, 향단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춘향을 찾아가 춘향과 상봉하는 장면을 모티프로 하고 있는 이 시는 춘향의 목소리를 빌려 여성 화자의 섬세한 어조로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 ▶ 시 감상의 실제

문학적인 글쓰기는 국어 문화의 전통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 이루어지기 어렵다. 문학적 글쓰기는 국어 표현의 묘미와 맛을 잘 살릴 수 있어야 하고 또 국어의 각 어휘에 배어 있는 상징성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문학적 글쓰기는 참신성을 중요시하지만 참신성이 전통성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참신한 문학적 표현이란 전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부터 나

---

77) 시 전문은 이 논문 p.30.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학적 글쓰기의 전통을 재해석하여 연대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히는 것이 참신한 문학적 글쓰기의 올바른 방법인 것이다. 여기서는 전통 설화와 그것을 바탕으로 쓰여진 시를 감상해보고 문학 창작과 국어 문화의 전통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또한 사랑을 주제로 한 시들을 감상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자신이 꿈꾸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 ① 읽기 전 활동

사랑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류시화의 「소금인형」이라는 작품을 읽고, 그 작품을 노래로 만든 안치환의 음악을 들려준다.

### ② 읽기 중 활동

경험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 궤도나 보충학습자료 혹은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학생 각자가 자신의 경험적 지식을 보충한다.

- 제목을 통한 예측하기
- 어휘 학습

작품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찾아보게 한다.

### ● 사실적 질문

「견우의 노래」

- 이 시에서 연인을 갈라놓은 장애를 형상화한 것을 모두 찾으려면?
- 이 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된 표현 기법은?

「추천사」

- 이 시에서 볼 수 있는 자아의 모습은?

- 운명적 한계를 나타내는 시구는?
- 이 시에서 고통을 벗어나고픈 심정이 잘 표현된 부분은?  
「춘향유문」
- 춘향이 죽어서의 변신을 나타낸 말을 모두 찾아보자.

● 추론적 질문

「견우의 노래」

- ‘푸른 은하물’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 이 시에서 ‘견우와 직녀’설화를 원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 말해보자.

「추천사」

- 그녀가 암시하는 바를 생각해보자.
- 화자가 지향하고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생각해보자.
- 이 시를 읽을 때 호흡이 가장 가쁘고 격렬한 운동성을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은?
- 이 시에서 그녀의 왕복 운동과 시의 어조, 춘향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춘향유문」

- 이 시에 나타난 배경 사상 두 가지를 근거를 들어 논하라.
- 시적 화자가 보여주는 사랑에 대한 태도는?

● 비판적 질문

「견우의 노래」

- 시적 상황을 직녀가 견우에게 자신의 심정을 노래하는 것으로 재구성하여

발표해 보고 그렇게 바꾸었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해보자.

「추천사」

- 고전 소설 『춘향전』에 접맥되어 있다. 그로 인해 이 시의 장단점을 지닌다. 어떠한 점에서 그러한지 생각해보자.

「춘향유문」

- 제 3연의 저승과 춘향의 사랑 비교는 어법상 적절하지 못하다. 이른바 시적 허용이라 할 수 있는데 시인이 이러한 표현을 구사한 이유를 논하여라.

### ● 창의적 질문

「견우의 노래」

- 만약에 내가 이 작품 속 화자의 처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추천사」

- 화자의 소망은 무엇인가? 만약에 내가 이 작품의 화자라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겠는가?

「춘향유문」

- 본인이 죽는다고 가정하고 사랑하는 이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 ③ 읽기 후 활동

사랑이라는 주제를 내면화하기 위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자신이 꿈꾸는 사랑에 대해 한편의 글(시 또는 산문)을 써보도록 한다.

### 3. 한(恨)의 肉化

「귀촉도」<sup>78)</sup>는 사별한 입에 대한 그리움과 못다한 사랑에 대한 회한, 입의 죽음에 대한 비통한 심정을 여인의 처절한 어조로 표현한 작품이다.

1연에서는 입이 가시던 모습과 그 가신 길이 너무 멀기에 다시는 돌아 올 수 없음을 ‘삼만 리’라는 거리감으로 보여 주고 있다. ‘삼만리’가 상징하듯 그렇게 먼 곳으로 떠난 입을 그리워하는 화자인 여인은 억누를 수 없는 슬픔 때문에 눈물이 ‘아롱아롱’ 맺힌다. 두견화인 진달래꽃은 새의 전설과 관련된 시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흰 옷깃 여며 여며 가읍신 님’에서도 죽음의 이미지와 함께 백의 민족이 갖는 근원적인 한을 느낄 수 있다. 2연은 돌아오지 못하는 입에 대해 ‘신이 나 삼아 줄 걸’, ‘이 머리털 엮어 드릴 걸’ 하면서 생전에 좀 더 잘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를 나타내는 한편, 입이 다시 살아 돌아오기만 한다면, 지극한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3연에서는 화자의 감정 이입인 ‘귀촉도’의 울음이 중심을 이룬다. 귀촉도는 입에 대한 그리움과 서러움, 후회의 감정이 사무치고 북받쳐서 ‘목이 젖은 새’이며 ‘제 피에 취한 새’이다. 그러므로 새의 울음은 겉으로 표출되지 않고 안으로만 조여든다. ‘하늘 끝 호을로 가신 님’이기에 그 입을 생각하는 그리움의 고뇌는 안으로 응어리져 피맺힌 눈물을 이룬다. 따라서 귀촉도의 울음은 바로 시인 자신의 애틋한 슬픔이자 사랑인 것이다.

「신부」<sup>79)</sup>는 혼인 첫날 밤에 생긴 오해로 인해 신부가 40-50년을 첫날 밤 모습 그대로 앉아 있어야 했고 신랑의 손길이 닿고서야 재가 되어 내려앉았다는 비극적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신부의 수동적이고 침착한 기다림과 신랑의 조급한 마음이 대립됨으로써 비극이 한층 고조된다. 옷자락이 돌쩌귀에 걸린 것

---

78) 시 전문은 이 논문 p.37.

79) 시 전문 이 논문 p.54.

을 신부가 음탕해서 잡아당기는 것으로 오해한 신랑에게 신부는 40-50년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저항으로 맞서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다림은 자기 소멸이라는 더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된다. 40-50년이라는 긴 세월은 한 인간의 삶 전체를 의미하며 우연히 들른 신랑의 손길이 닿고서야 '매운재'로 내려 앉는 신부의 소리 없는 반항이 나타나면서 신랑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 그러므로 '초록재'와 '다홍재'는 신부의 초록 저고리와 다홍치마가 아닌 신부의 영적 존재의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이렇게 본다면 철저한 속물적 근성의 신랑에 대비되는 신부는 전통적인 윤리관을 대변하는 일부종사라는 현세적·육체적 세계를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이 시는 신비주의적이고 토속적인 세계관을 잘 보여주며 일부종사에 대한 우리 여인들의 매서운 집념과 그 속에서 겪어야 했던 한을 미당의 독특한 미학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라 하겠다.

#### ▶ 시 감상의 실제

문학은 인간의 생활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문학은 우리에게 삶의 양식과 지혜를 던져 주었고, 사상과 감정을 더욱 풍부하게 지속시켜 주기도 하며, 인생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주기도 한다. 문학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의 삶의 모습과 생활 방식, 느낌과 감정이 담겨 있다.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꿈과 이상에 대한 동경,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인간에 대해서 깊이 탐구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운명적으로 주어진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생기는 한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아의 초극적 의지의 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김소월의 시와 비교하여 한을 수용하는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도록 한다.

① 읽기 전 활동

주제범주에 대한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키고,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한(恨)이라는 제시어를 주고 의미지도 그리기를 하였다.

② 읽기 중 활동

작품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찾아보게 한다.

● 사실적 질문

「귀촉도」

- 화자 자신과 임 사이의 아득한 거리를 표현한 시구는?
- 화자가 여성임을 드러내는 시는?
- 못 다한 사랑에 대한 회한의 감정이 표현된 연은?

「신부」

- 시간과 생사의 경계를 넘어선 신부의 절개를 형상화한 소재는?
- 이 시의 형식상의 특징을 말해 보자.

● 추론적 질문

「귀촉도」

- 이 시에서 귀촉도가 지니는 의미는?
- '은하물'이 이 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서에 미치는 효과는?

「신부」

- '매운재'와 '초록재, 다홍재'의 상징적 의미는?
- 신랑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말해 보자.

● 비판적 질문

「귀촉도」

- 2연의 내용 전개에서 약간의 도치가 사용되고 있다. 의미가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자유롭게 재배치해 보자.

「신부」

- 이 시는 산문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시를 연과 행으로 구분하여 다시 쓴다면 그 느낌이 어떻게 다를지 이야기해 보자.

● 창의적 질문

「귀촉도」

- 만약 내가 화자라면 당시 현실 상황에서 임에게 다하지 못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였을까?

「신부」

- 신부가 첫날 밤 도망간 신랑을 긴 세월 동안 기다린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상해 보자.

③ 읽기 후 활동

한의 육화라는 주제를 내면화하기 위해서 김소월의 「초혼」을 제시하고 화자의 한을 수용하는 태도에 대해 비교해 보자. 또한 두 시가 전통 설화를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설화를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들에는 이 외에도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게 한다.

#### 4. 인생의 고귀함

가난이야 한낱 襤褸에 지나지 않는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 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靑山이 그 무릎아래 芝蘭을 기르듯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목숨이 가다 가다 놓을져 휘어드는  
오후의 때가 오거든  
내외들이여 그대들도  
더러는 앉고  
더러는 차리리 그 곁에 누워라

지어미는 지애비를 물끄러미 우러러보고  
지애비는 지어미의 어미라도 짚어라

어느 가시덤불 쭉굴형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늘 玉돌같이 호젓이 문혔다고 생각할 일이요  
靑苔라도 자욱이 끼일 일인 것이다.

- 「無等을 보며」 전문

이 시는 시인이 전쟁 중 광주로 피난하여 가난과 굶주림의 나날을 보낼 때 쓴 것이다. 1연에서는 우리가 처한 가난이라는 상황과 우리의 마음씨가 대비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가난은 곁에 걸친 현 옷에 지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씨는 푸른 여

름산처럼 맑고 깨끗하다는 것이 이 부분이 의미하는 내용이다. 2연에서는 우리가 자식을 기르는 일이 청산이 지란을 키우는 일로 비유되었다. 아무리 삶이 어렵더라도 우리 자식을 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청산이 지란을 기르듯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느 면에서는 의미이다. 지란은 청산이 있음으로 그곳에 피어난 것이요, 청산이 이를 거둘 수밖에 없다. 자식들도 마찬가지로이다. 또한 우리가 “목숨이 가다 가다 놓을 처 휘어드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부부 간의 위안과 화합으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 그 위안과 화합의 모습을 그린 것이 3연이다. 지어미는 누워서 지애비를 물끄러미 우러러보고, 지애비는 지어미의 이마라도 짚어 위로해 주는 모습, 아마도 이 모습은 굶주림에 지친 부부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연은 부부의 마음의 자세를 제시한 부분이다. 가시덤불 쭉구렁에 누이더라도 옥돌 같이 호젓이 묻혔다고 생각하라는 것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깨끗하고 순수한 존재라고 여기는 뜻이다. 그렇게 하면 옥돌에 청태가 끼이듯 그것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나리라는 것이다.

내 마음 속 우리 님의 고운 눈섭을  
 즘은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다 옮기어 심어 놔더니  
 동지 선달 날으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시늉하며 비끼어 가네

- 「동천」 전문

미당의 말에 의하면 그는 겨울이 되면 공덕동 집에서 과히 멀지 않은 서강의 얼어붙은 한강가의 언덕으로 자신을 달래며 아침마다 눈길을 헤매 가곤 했는데,

이 시의 시상이 떠오른 것도 이런 겨울의 서강에서의 아침 산보 속에서였다고 한다. 그때 그의 머리 위에서 날던 새와 그와의 상봉은 님과 연결이 되고 이어서 이 시의 착상의 모티브가 되었다.

우선 이 시에는 깜깜한 동짓달 밤하늘에 떠 있는 초승달과 그 어두운 하늘을 날아가는 새가 그려지고 있다. 마치 한 폭의 담백한 수묵화와 같은 시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시이다. 동양적 신비감에 싸인 선(禪)의 세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분위기는 시적 정서를 형성하여 우리에게 떠나간 임과의 애잔한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비록 떠난 임이지만 그 임을 그리는 '내'라고 표현된 시적 화자의 맑은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더구나 이런 화자의 마음을 자연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무심한 새마저도 알고 있는 몰아일체의 동양적인 시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은 초기 시나 후기 시에 보이는 산문 지향<sup>80)</sup>과는 전혀 다른 방식인 절제된 언어와 고도의 상징적인 수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수사적이거나 설명적인 어투를 배제하면서도 나름의 시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시어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시에서는 '고은 눈썹'과 '매서운 새'라는 시적 이미지가 중요하게 표현되어 있다. 초승달로 비유된 눈썹은 정화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달로 표현된 눈썹은 인간의 근원적 존재를 암시하는 동시에 완전 무결한 보름달을 지향하는 존재이다. 이에 비하여 새는 이런 영원의 세계를 동경하지만 결국 한계가 있는 인간을 상징하고 있다. 아울러 어둠과 겨울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구도적 자세를 가지고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또 다른 인간이라는 존재를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다.

---

80) 이런 산문 지향이 초기와 후기에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중기에도 「상리과원」이나 「선덕여왕의 말씀」, 「인연설화조」 등은 산문 지향을 보이고 있다.

## ▶ 시 감상의 실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삶이라 한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 슬픔 등의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기도 하며 현재 자신의 삶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은 때로 충족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이렇게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이 서로 얽혀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삶의 경험들은 모두 시의 중요한 소재이자 주제가 될 수 있다.

여기서는 미당 시를 통해 인생의 고귀함에 대해 생각해 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한다.

### ① 읽기 전 활동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삶과 의미 없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한다.

### ② 읽기 중 활동

작품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찾아보게 한다.

#### ● 사실적 질문

「무등을 보며」

- 가난을 바라보는 시인의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난 행은?
-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중한 사랑의 자세가 드러난 연은?

「동천」

- 이 시에 나타난 이미지의 대립 관계가 나타난 시어는?

-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성이 나타난 행은?

● 추론적 질문

「무등을 보며」

- 이 시에 제시된 산의 이미지는?
- 5연의 '청태'가 상징하는 의미는?
- 작중 화자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는?

「동천」

- 눈썹을 하늘에 옮겨 심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자.
- 화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 보자.
- 이 시를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느껴지는 분위기에 대해 말해 보자.

● 비판적 질문

「무등을 보며」

- 이 시에 나타난 작가의 삶의 태도를 비판해 보자.

「동천」

- 이 시에서 '눈썹'을 화자가 사랑하는 한 여인의 심상으로 보지 않고, 화자가 오랫동안 마음 속에 품어 온 삶의 고귀한 정신적 가치로 상징화시켜 본다면 시 전체의 이해를 어떻게 달리 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

● 창의적 질문

「무등을 보며」

- 만일 내가 화자와 같은 상황이라면 가난에 대한 현실 인식의 태도가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자.

「동천」

- 왜 새가 비끼어 갔을지 생각해 보고 이 시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 ③ 읽기 후 활동

인생의 고귀함이라는 주제의 내면화를 위해 인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한다.

## IV. 교수 - 학습의 실제

문학 영역의 교수-학습은 문학의 본질 자체가 갖는 다양성으로 인해 단순화시키거나 모델링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시 교육을 학습 모형으로 도식화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교수-학습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흐름을 꼼꼼히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구체적인 교수-학습 모형을 수립할 때에는 본시 학습 지도 계획 외에도 작품이 수록된 교과서의 단원명, 단원의 성격에 대한 개괄적 설명, 단원의 성격에 대한 개괄적 설명, 단원의 성격에 맞는 학습 목표 등을 명시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미당의 작품의 경우 문학 교과서마다 수록된 작품이 다르고 단원명과 학습 목표가 다르므로 해당 학교의 채택된 교재에 따라 구체적인 교수-학습 모형이 달리 제시될 수 있다. 그 순서는 일반적으로 '단원명 - 단원의 개관 - 단원 학습 목표 - 지도상의 유의점 - 관련 단원 - 소단원 지도 계획 - 본시학습 지도 계획'으로 진행된다.

여기서는 앞에서 다루었던 주제 중심의 감상 중 하나인 '사랑의 지고성'을 중 단원으로 설정하고 「추천사」를 소단원으로 설정하여 본시 학습 지도 계획을 구성하고자 한다. 실제 교수-학습에 적용할 때에는 단원명과 학습 목표 그리고 수업 시수에 맞추어 비중을 두어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을 부분을 취사선택해서 지도해 나가면 될 것이다.

대단원명	시의 주제	소단원명	추천사		차시	1/3	
대상	고 2	수업일시	2004.	장소	해당학급	교사	이병숙
학습 목표	1. 분위기를 살려 시를 낭송할 수 있다. 2.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3. 시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과서, PPT, 작가의 다른 작품, 시 낭송 테이프, 학습지						
<b>본 시 수업 과정안</b>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학습 형태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8분)	# 전시 학습 내용 정리	* 출석 확인, 학습지 배부 * 전시 학습 내용 정리 * 지난 시간에는 …… 대해 공부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지난 시간 학습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질문한다			* 인사 및 학습 준비  * 대답한다.	일제 학습	시 낭송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를 틀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소란스럽지 않게 유의한다.
	# 학습 동기 부여	* 동기유발을 위해 류시화의 「소금인형」이라는 작품을 읽어 주고, 그 작품을 노래로 만든 안치환의 음악을 들려 준다. * 이 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 노래를 듣고 느낀 점에 대해 말해 봅시다.			* 누군가를 진정으로 알기 위해, 소중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그것과 동화될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각자 대답한다.		



<p>전개 (37분)</p>	<p># 『춘향전』의 주인공과 시적 화자의 차이</p>	<p>* 『춘향전』에서 춘향이의 그네 타는 행위와 「추천사」에서 시적 화자의 그네 타기 행위의 차이점에 대해서 발표해봅시다.</p>	<p>* 『춘향전』 - 춘풍에 겨워 유희를 하는 과정이며, 이몽룡과의 인연의 계기가 됨. 「추천사」 - 무언가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p>	<p>일제 학습</p>	<p>· 교과서</p>
	<p># 시어의 함축적 의미</p>	<p>* 춘향이가 벗어나고자 하는 세계와 지향하는 세계를 나타내는 시어를 찾아봅시다.</p>	<p>* 벗어나고자 하는 세계 - 수양버들, 풀꽃더미, 나비새끼, 피꼬리 지향하는 세계 - 머언 바다,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 서쪽</p>		
	<p># 행의 배열 효과</p>	<p>* 벗어나고자 하는 세계와 지향하는 세계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현실의 세계와 이상의 세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두 세계의 존재와 '그네'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p>	<p>* 그네는 하늘을 향해 날 수 있지만, 끈으로 매여 있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상과 현실, 초월의 세계와 욕망의 세계의 대립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p>		
		<p>* 1연의 2행에서 4행까지가 짧은 것은 이 부분의 템포를 느리게 하기 위한 것인데, 느린 템포를 필요로 하는 것은 내용의 어떠한 의미 또는 이미지 때문인가?</p>	<p>* 먼 바다로 배를 내미는 힘차고 느린 동작의 이미지가 느리고 힘찬 운율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p>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학습 형태	자료 및 유의점
		교 사	학 생		
정리 (5분)	<p># 의문점 질의</p> <p># 형성평가</p> <p># 정리 및 차시 예고</p> <p># 과제제시</p>	<p>*오늘 배운 내용에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하세요.</p> <p>*오늘 배운 내용을 형성평가를 통해 확인해 봅시다. 풀어보세요</p> <p>*다음 시간에는 제재와 주제가 유사한 작가의다른 작품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p> <p>*작가에 대해 조사에 오세요.</p> <p>*이것으로 오늘 수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p>	<p>*의문 사항을 질문한다.</p> <p>* 학습지를 풀고 답한다.</p> <p>* 다음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인지한다.</p> <p>* 과제를 공책에 기록한다.</p>	일체 학습	PPT

## V. 결론

시 교육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 세계를 접하게 함으로써 시적 감수성 및 상상력을 키우고 삶의 총체적인 모습을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시 교육은 작품을 폭넓게 감상하고 흥미를 갖고서 다양한 각도에서 음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입각하여 ‘서정주 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실천적 고민을 바탕으로 특정 작가와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시 교수법의 한 모형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쓰였다. 미당 서정주는 한국 현대 시사에서 가장 빛나는 위상을 점거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미당 시의 교수법은 특별한 배려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미당은 인간적 소재를 통하여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런 인간들이 지향하는 영원의 세계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또한 시적 대상을 자신의 체험 속에서 찾고 있으며 이를 적절한 언어와 이미지를 통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우리가 그의 시에서 이런 의미들을 바르게 읽을 때 그의 시적 편력도 시 교육의 차원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정주 시 연구의 흐름을 훑어봄으로써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설화 모티프를 수용한 시를 시 교육 내용으로 선택하였다. 그의 시에 나타난 설화 수용과 문학 세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토대로 설화 모티프의 주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 교수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교육 과정상의 제한을 넘어 텍스트를 추가로 선택하고 재구조화 함으로써 실험적 수업 모형의 설계를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18종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텍스트 상호성이 있는 작품이 추가되었다. 수업의 내용은 주제별로 나누어 읽기 전 활동 - 읽기 중 활동 - 읽

기 후 활동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실제 학교 교육에서의 시 교육의 문제점을 살피고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본론에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설화 모티프 수용은 첫 시집인 『화사집』에서부터 여섯 번째 시집 『질마재 신화』에 수록된 작품들 중에 설화 모티프를 수용한 작품을 중심으로 설화 모티프의 수용에 대해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 설화 모티프 수용의 의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미당은 『화사집』에서 서구 정신의 영향으로 대부분 서구 지향적인 시를 썼다. 『화사집』에서 볼 수 있는 관능적인 세계로의 몰입은 고대 그리스적 육체성과 보들레르 시 세계의 영향, 니체의 초인 사상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미당의 초기 문학 세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초기시의 특징은 자기인식과 대담한 자기 고백, 그리고 성적 관능의 세계에 대한 탐구와 악의 세계에 대한 재해석 등으로 요약된다.

『화사집』의 「수대동시」는 서구 지향적인 미당의 시가 동양적인 세계로 귀환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작품으로 미당의 관심의 영역이 서구 설화에서 동양의 고대 설화로 바뀌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후 『신라초』, 『동천』, 『질마재 신화』에 나타나는 신라와 불교에 대한 탐구로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미당의 문학 세계를 형성한다.

두 번째 시집인 『귀족도』에서는 동양의 고대 설화를 수용한 「귀족도」와 「견우의 노래」 등이 있으며, 『서정주시선』에서는 우리의 고전 소설인 「춘향전」을 수용한 「추천사」, 「다시 밝은 날에」, 「춘향유문」 등이 있다. 이렇게 잘 알려진 설화의 시적 수용은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사람들이 공감할 보편적인 정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다.

미당의 시 의식의 변화는 『신라초』, 『동천』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살 기도로부터 겨우 회생된 미당은 이때부터 신라 설화에 매력을 느끼고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같은 신라 관계 문헌을 정독하였다. 이를 통해 미당은 신라 정신의 핵심을 유·불·선 3교의 중요한 정신을 두루 포함하고 있는 풍류정신에서 찾게 되는데 이러한 풍류정신과 영원주의는 미당의 문학세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미당의 풍류 정신과 영원주의는 이후 불교의 윤회설이나 인연설로 확대되어 미당의 문학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설화에 대한 관심과 몰입은 『신라초』, 『동천』에 집약되었다. 『신라초』에 설화를 수용하여 신라, 신라정신을 시화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지귀 설화를 수용한 「선덕여왕의 말씀」, 사소 설화를 수용한 「꽃밭의 독백」, 「사소 두 번째 편지 단편」, 연오랑 세오녀 설화를 수용한 「해」, 호접(胡蝶)설화를 소재로 한 「숙영이의 나비」, 불교의 윤회 설화를 수용한 「인연설화조」 등이 있다. 『동천』에 실린 시들 중 설화를 수용한 작품으로는 불교 인연 설화를 수용한 작품으로는 「동천」,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나그네의 꽃다발」, 「마른 여울목」 등을 비롯하여 수로 부인 설화를 소재로 한 「수로부인의 얼굴」, 죽통미녀 설화를 수용한 「피는 꽃」, 반혼 속신을 수용한 「외할머니네 마당에 올라 온 해일」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영취사에 얽힌 설화를 배경으로 한 「무제」나 신희거사의 설화와 대성(大城)의 설화 두 편을 수용한 시 「여행가」 등이 있다. 이들 작품에 형상화된 신라정신은 우리 고유의 국선도와 불교적 우주관이 결합된 것으로 인간존의 영원성을 믿는 고대적 사유 태도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후 미당이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세계인 질마재로의 귀환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질마재 신화』는 미당이 어릴 때 들어왔던 이야기나 마을에 떠도는 이야기

를 시로 재구성했다. 미당인 이 시집에서 응결된 형식을 버리고 이야기의 형식을 그대로 드러낸 산문체로 시를 썼다. 미당의 상상력은 질마재라는 공간을 단순히 개인적인 공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영원한 공간, 보편적인 정서가 있는 공간으로 확대시킨다. 따라서 『질마재 신화』에서 미당은 고향 마을의 이야기에서 민족의 보편적이고도 원형적인 정신을 찾고자 했다.

이처럼 『화사집』의 서구 정신 세계의 영향, 『귀족도』, 『서정주 시선』 무렵 서구 정신과 결별하고 동양 고대 설화를 수용하였다는 것, 『신라초』, 『동천』에서 신라 설화에 몰입함으로써 신라인의 풍류정신을 발견하고 영원주의로 나아가는 것, 『질마재 신화』에서 고향 질마재 마을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신화를 창조함으로써 미당은 설화 수용을 통해 그의 문학 세계를 발전시켜 갔다.

미당에게 있어 시로 형상화되기 위해 선택된 설화는 시인의 문학 세계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발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설화 모티프 수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다면 학생들이 미당 시를 감상하는데 있어서 보다 유익할 것이다.

교수법은 주제별로 나누어 텍스트 상호간의 비교 분석 과정을 고려하였다. ‘읽기 전 활동 - 읽기 중 활동 - 읽기 후 활동’으로 나누어 수업이 진행된다. 읽기 전 활동은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의 학생들의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작품의 흥미 유발의 단계로 주제 범주에 대한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단계이다. 읽기 중 활동은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작품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유도하도록 한다. 작품의 해석, 맥락의 이해 등을 통해 작품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서는 단계이다. 읽기 후 활동은 학생들이 작품을 통해 받았던 전체적인 느낌이나 학습한 내용, 주제를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판적 글쓰기나 토론 수업을 유도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교수-학습의 일반적 모형을 참

고로 하여 문학 교과서에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는 「추천사」의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해 보았다. 물론 현실적으로 미당의 시만 3차시까지 교수-학습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의 재량으로 선행학습을 바탕으로 과제 제시를 적절히 한다면 일부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이 실제 문학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시 감상 모형의 확립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교육 현장은 이러한 시 교육 방법을 실현시킬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교육과정상 충분한 수업 시수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교사의 과다한 업무와 수업 시수 등으로 인해 교사의 수업 재구조화 노력이 쉽지 않은 점, 입시 위주의 학교 수업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교사에게는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들의 수준, 주위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방법을 찾는 일이 요구된다. 또한 아무리 좋은 교육 방법론도 그것이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바람직한 시 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시 교육 방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서정주. (1972). 『서정주 문학 전집』. 서울 : 일지사.  
\_\_\_\_\_. (1977). 『나의 문학적 자서전』. 서울 : 민음사.  
\_\_\_\_\_. (1993). 『서정주 문학 앨범』. 서울 : 웅진출판.  
\_\_\_\_\_. (1994). 『미당 자서전』. 서울 : 민음사.  
\_\_\_\_\_. (1994). 『미당 시전집』. 서울 : 민음사.

### 2. 단행본

- 강성자. (1993). 「서정주 시의 설화 수용과 변천 양상」. 『한국현대문학과 전통 : 청하 성기조선생 회갑기념 논문집』. 서울 : 신원문화사.  
김시대. (1975). 「서정주의 역설적 의미」. 『서정주 연구』. 서울 : 동화출판공사.  
김용직. (1975). 「시인부락 연구」. 『서정주 연구』. 서울 : 동화출판공사.  
김열규. (1980). 『한국의 전설』. 서울 : 삼성인소주식회사.  
김정신. (2002). 『서정주 시 정신』. 서울 : 국학자료원.  
김재홍. (1986). 『한국현대시인연구』. 서울 : 일지사.  
김화영. (1984). 『미당 서정주 시에 대하여』. 서울 : 민음사.  
박호영. (2003). 『서정주』. 서울 : 건국대학교출판부.  
선주원. (2003). 『시교육의 원리와 방법』. 서울 : 박이정.

- 송하선. (2000). 『서정주 예술 언어』. 서울 : 국학자료원.
- 오세영. (1994). 「설화의 시적 변용」. 『미당 연구』. 서울 : 민음사.
- 육근웅. (1997). 『서정주 시 연구』. 서울 : 국학자료원.
- 윤여탁. (1996). 「문학 교육에서 이론의 위치」. 『시 교육론 - 시의 소통 구조와 감상』. 태학사.
- 윤창원. (1995). 「시교육과 텍스트 해석」.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광호. (1994). 「영원의 시간, 봉인된 시간 : 서정주 중기시의 <영원성>문제」. 『미당연구』. 서울 :민음사.
- 이남호. (2001). 『교과서에 실린 문학 작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서울 : 현  
대문학.
- \_\_\_\_\_. (2003). 『서정주의 화사집을 읽는다』. 서울 : 열림원.
- 이상구. (2002). 『구성주의 문학 교육론』. 서울 : 박이정.
- 이창배 역. (1974). 『T.S Eliot 선집』. 서울 : 을유문화사.
- 일 연. (1994). 『삼국유사』 권 1. 이창배 역. 서울 : 을유문화사.
- 최원규. (1983). 「미당시의 불교적 영향」. 『한국근대시론』. 서울 : 한문사.
- 허세욱. (1975). 「도잠(陶潛)과 이백(李白)과 미당 사이 : 서정주 시의 동양적 사  
상계보론」. 『미당 서정주 연구』. 서울 : 동화출판공사.

### 3. 소논문

- 강희근. (1984). 「서정주 시의 서술성에 대하여」. 『월간문학』.
- 김우창. (1968). 「한국시와 형이상 : 하나의 관점 - 최남선에서 서정주까지」. 『세대』.
- 김윤식. (1976). 「거울화의 두 양상」. 『현대문학』.

- 김인환. (1972). 「서정주의 시적 여정 : 『화사집』에서 『질마재 신화』까지의 거리」. 『문학과 지성』.
- 김재홍. (1975). 「대지적 사랑과 우주적 조응」. 『현대문학』.
- \_\_\_\_\_. (1982). 「생애사(生涯史)와 역사적 순응주의」. 『현대문학』.
- 김종길. (1975). 「추천사의 형태」. 『사상계』.
- 김학동. (1967). 「서정주 초기 시에 미친 영향」. 『어문학』 16집. 한국어문학회.
- \_\_\_\_\_. (1974). 「신라의 영원주의」.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 문덕수. (1963). 「신라정신에 있어서의 영원성과 현실성」. 『현대문학』.
- 송 옥. (1952). 「서정주론」. 『문예』 오락번. (1984). 「현대문학의 이해와 교육 방법」. 『교육논총』 고대출판부 제14집.
- 유병석. (1975). 「교단에서 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문학사상』 통권32호.
- 유종호. (1994). 「소리 지향과 산문 지향 : 미당 시의 일면」. 『작가세계』.
- 윤재웅. (1996). 「미당 연구사 개관」. 『시와 시학』.
- 이용훈. (1978). 「미당 시의 설화 수용의 양상 : 「신라초」를 중심으로」. 『한국해양대학교논문집』 13.
- 천이두. (1972). 「지옥과 열반 : 서정주론」. 『시문학』.
- 최동호. (1980). 「서정적 자아 탐구와 시적 변동 : 이상·윤동주·서정주를 중심으로」. 『현대문학』.
- 허영자. (1975). 「현대시에 나타난 신화의 세계 (상)」, 『성신여사대 연구논문집』 8.
- \_\_\_\_\_. (1975). 「현대시에 나타난 신화의 세계 (하)」, 『성신여사대 연구논문집』 9.
- 황동규. (1981). 「탈의 완성과 해체」. 『현대문학』. 황현산. (1995). 「서정주, 농경사회의 모더니즘」. 『한국문학연구』 17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 4. 학위 논문

- 김선학. (1989). 「韓國 現代詩의 詩的 空間에 關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김수이. (1997). 「서정주 시의 변천 과정 연구 : 욕망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 숙. (1991). 「시의 본질적 특성에 따른 시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연수. (1988). 「중학교 현대시 교육의 실태와 수업모형」.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재순. (1993). 「현대시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박순희. (1994). 「서정주 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변해숙. (1987). 「서정주 시의 시간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신병은. (1985). 「신화적 인물의 시적변용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심재휘. (1997). 「1930년대 후반기 시 연구 : 백석 · 이용악 · 유치환 · 서정주 시의 시간의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유명희. (2002). 「서정주 시의 설화 수용 양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혜숙. (1994) 「서정주 시 연구 : 자기 실현 과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대학원.
- 이남호. (1981). 「운동주와 서정주의 「자화상」 비교 분석」. 석사학위논문. 고려

대학교 대학원.

이성희. (2003). 「서정주 시의 설화 수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임문혁. (1992). 「한국 현대시의 전통 연구 : 설화의 수용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조연수. (1990). 「현대시 감상 지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주 옥. (1983). 「서정주 시의 설화 수용 양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하재봉. (1981). 「서정주 시에 나타난 물질적 상상력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황인교. (1982). 「서정주 시의 상상력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ABSTRACT

Research on teaching method of 'Seo, Jung-Joo' in  
his poetry theme

- Poetry of which theme is tale oriented. -

Lee Byung-suk.  
Major in Korea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ultimate goal of teaching poetry to make learners have the capability of reading and understanding a poem, look into their own lives based on this ability and set up new lives. In order to that, poetry education needs to improve learners' literary ability, to connect a literary experience and a real life closely and to foster a self-examination and new self-establishing. This study is designed for searching the right way in poetry education.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Midang Seo-jungjoo's poetry which has been located at certain level in modern poetry history and its education at both middle and high schools in Korea. Therefore, this intends to introduce a detailed teaching methods about special writer and poetry based on the question, 'how to teach Seo-jungjoo's poetry.

Prior to discussing a teaching poetry in detail, a tale-motivated poem which is thought to be useful was chosen as an education content through looking into a stream of Midang's poetry. A relationship between his tale-acceptance and his literature was also examined. In addition to that, this research tries to find out teaching ways related to a tale-motivated subject.

A tale-motivated acceptance gropes for its meaning based on his tale-motivated works among his collections from the first one, Whasazip to the sixth one, Silmaja shinwha.

An aspect of a tale acceptance is divided into three origins which are from Western Europe, from Buddhism and from an aborigine. Midang wrote Western style poetry in Whasazip influenced by Western culture. A denotion to the sensual world shown in Whasazip was seen as an influence of Niche's Supermanism, the ancient Greek body and Bodler's poetry world. These are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Midang's early literary world.

Both his second collection, Guichokdo and third one, selection of poems Seo-jongjoo contain Oriental old tales or classic novels during ancient times which are already familiar to readers. An acceptance of well-known stories can induce readers' attention and make it easy to form their sympathies because of its universality.

The change in Midang's awareness of poetry is shown clearly in Shinracho and Dongchen. He was attracted to Shinra's tales and read Shinra-related literature such as Samkookyusa and Samkooksagi carefully. Through these, he found the heart of Shinra genius form a spirit of elegance, which expanded to a transmigratonism and fatalism of Buddhism and

controled Midang's literary world. And Shinra's spirit which is a combination of kooksundo and Buddhist outlook on the universe suggests a possibility of Midang's return to an aboriginal and traditional world, Slimaja later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belief that an eternity of human soul exists.

Teaching ways give a consideration about mutual analytic progression with a text classified by each subject. A class goes through 'an activity before reading-an activity during reading-an activity after reading'. An activity before reading let students express their first feelings when they meet a poem. And an activity during reading is divided into four sections and induces various approach to the poem. An activity after reading makes students internalize their entire feeling, learned contents or a subject from the poem.

Finally, this study designed Chuchensa's teaching-learning model which is collected in a literature text book with reference to a general teaching-learning model used in most education places. This study aims at establishing a poetry appreciation model which can be used in real literature classes. However, our education field is lack of various conditions to make this teaching-learning way real. In spite of this lackness, we cannot just wait until the education is improved to realize the teaching-learning way. There will be a limitation in any improvement poetry education as long as the difficult entrance exam for university exists. However, a literature or an education is a problem of human rather than of a system. A literature and its education will do well of itself when there are many those who know well and have much interests in a literature. In order to do that, teachers should make an effort to make students receive valuable literary education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and duty based on deep understanding a literature. Students who are especially studying poetry education should not confine a poem in a title of a work and should realize that learning a poem is a progress of finding the meaning of life like philosophy.